

3246
340.91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查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 報告書임.
- II. 收錄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도 아니며 統一 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 社會文化 및 藝術分野 交流方案

研究責任者

社會文化分野 都興烈
 (忠清大社會科學大學教授)

藝術分野 洪一植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所長)

2000

남북교류
 남북한차라야교류
 " 예술교류
 남북한교류방안

刊行責任 金諄教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南北韓 社會文化交流 發展方案

研究責任者 鄒 興 烈

(忠北大社會科學大學教授)

目 次

1. 問題提起	5
2. 理論的 背景	9
3. 交流戰略構想의 大前提 設定	15
4. 文化交流戰略의 構成要素	23
가. 文化交流提議의 來歷	23
나. 文化交流 沮害要素	25
다. 文化交流 實踐可能條件의 導出	34
5. 東西獨의 文化交流事例 檢討	41
6. 文化交流對象領域選定	52
가. 文化分野交流實踐可能分野의 提起	52
나. 文化交流可能分野의 優先順位 判斷	58
다. 文化交流可能分野의 實踐優先順位 導出	60
7. 文化交流의 分野別 推進方案：學術分野의 例	64
가. 學術交流의 目的과 期待效果	64
나. 學術交流의 對象分野 및 主題選定	65
다. 學術交流의 提議方法 및 實踐段階	69
라. 學術交流에 따른 利害得失 및 效果豫測	71
마. 學術交流發展에 對備한 對策	74
8. 結論 및 建議	76

1. 問題提起

社會現象은 歷史的, 社會的 產物이다. 이는 歷史的 契機過程 속에서 이룩되고 社會文化的 條件의 反映으로서의 意義를 지닌다. 交流 協力이란 現象 역시 歷史性을 띤 社會的 產物인 것이다.

따라서 交流現象은 ① 歷史的 經驗에 바탕해야 하며 ② 社會構 造的 特殊性을 反映한 것이어야 하며 ③ 統一(理想)實現으로 接 近되는 方向에서 問題意識이 定立되어야 한다. 이런면에서 南北韓의 交流와 協力は 分散된 民族으로써 반드시 거쳐야 할 根本的 社會 過程이다.

韓國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과 近代的 民族國家 建設을 成就하려 는 積極的 姿勢로 이를 爲한 모든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1970 年代 以後 南北韓關係는 韓國의 主導的 役割과 進就的 發祥으로 民 族歷史上 最初는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를 成立시키는 歷 史的 課業을 이룩한 바 있다.

1970年 8月 15日 當時 朴正熙大統領은 『平和統一의 基盤造成을 위 한 接近方法에 關한 構想』을 통하여 北韓이 今後 「모든 戰爭挑 發行爲를 즉각 中止하고 武力拋棄를 內外에 宣言, 이를 行動으로 실 증한다면 南北間에 가로 놓인 人爲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 갈 수 있는 劃期的이고도 보다 現實的인 方案을 提示, 實行할 용 의가 있다」고 宣言하였다.

이어 1971年 8月 韓國政府는 人道的 南北赤十字會談을 提議하고

北韓이 이를 受諾함으로써 비로소 本 會談이 開催되었다. 이를 前後하여 韓國政府는 民族統一에의 基本的 接近方案으로서 人道的 및 文化的 接觸, 經濟的 關係, 政治問題討議라는 이른바 3 段階統韓方案을 提起하고 그후 繼續的으로 이의 實現을 主張하였다.

이로써 南北關係는 한때 實質上 競爭的 또는 協助的 共存關係로 접어들게 된 듯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政治的인 調節委員會와 人道的인 赤十字 會談의 병행에 의거한 段階的인 통한원칙에 대해서 韓國의 立場과 北韓의 立場이 根本的으로 대립적 關係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是認하지 않을 수 없다.

北韓當局은 平和攻勢의 연막뒤에서 소위 「南朝鮮革命」의 執念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이데올로기”적 면에서도 韓國이 多元的인 民主主義的 文化를 追求하고 있는데 대하여 北韓의 全體主義立場에서는 政治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一元體制로서 政治와 社會文化가 區分되지 않고 있다.

또한 7.4 共同聲明 以後에도 南北間에서는 和解와 信賴의 與件이 진전되었다기 보다는 北韓側의 대남도발이 그대로 계속됨으로써 南北間의 緊張關係가 가증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와같은 南北間의 立場의 對立에도 不拘하고 韓國政府의 伸縮성있는 接觸試圖→對話追求→交流促進→交流協力の 推進態勢는 80 年代 以後에도 繼續的인 會談提議와 聲明서 發表에서 實證되고 있다.¹⁾

註 1) 예컨대 1981.6. 全斗煥大統領의 「南北韓當局最高責任者會談」 「서울 평양의 상주연락대표부 설치」제의 등을 들 수 있다.

그것은 南北韓의 交流와 協力이 南北韓 社會의 相互開放을 促進함으로써 더 이상의 文化的 異質化를 中斷하고 同質性을 回復하는 基本的 社會過程이며 나아가 平和的 統一의 手段이 되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南北對話와 南北交流努力 가운데서도 社會文化分野의 交流는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體育會談에 비해서 어려운 課題가 될 것이다. 文化交流는 社會開放化와 더불어 意識自由化, 탈 “이데올로기” 화, 文化的 普遍化를 가장 包括的으로 자극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극히 制限된 分野의 제약된 範圍에 국한된 部分的 交流만을 期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現象은 分斷이후 漸增的인 交流擴大를 끈질기게 지속해온 東·西獨의 事例에서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다.

역설적으로 보면 文化交流는 그것이 實踐될 경우 그만큼 큰 波及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① 社會文化的 異質化를 中斷하고 異質的인 文化構造의 創造的 同質化를 통하여 南北韓 單一文化圈을 形成하는데 가장 直接的으로 寄與하게 될 것이며

② 北韓社會의 閉鎖性과 硬直性을 이완시켜 構造的 柔軟性과 開放化를 促求하고

③ 나아가 支配的 知識階層의 本質的인 意識自由化를 促進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④ 結果的으로 南北韓 “이데올로기”의 感情的 對立을 止揚하여 敵對的 緊張關係를 緩和함으로써 政治會談을 包舍한 餘他 모든 分野의 交流協力을 擴大하고 나아가 統一文化 創造에 積極的으로 寄與

할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80年代에는 南北關係에서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體育會談等 南北對話와 實質的 交流가 상당히 進展될 것으로 展望되고 또 그렇게 되기를 熱望한다. 이러한 事態展望에 의거해서 本研究에서는 社會學, 社會心理學, 心理學에서 論議되고 있는 相互作用, 相互交流에 관한 理論을 進계로 하면서 70年代에 있었던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經驗을 바탕으로 삼고 7.4南北共同聲明의 精神에 根據하여 앞으로 展開될 「文化會談」과 이에따른 南北韓間 社會文化交流協力에 對處하여 文化交流協力の 各級段階(즉 文化交流를 위한 接觸段階→開催段階→成熟段階→交錯段階→中斷段階→새로운 接觸段階等)에서 提起되는 問題와 그의 解決方案을 摸索하고자 한다.²⁾

註2) 단, 文學藝術分野는 別途課題로서 研究되기 때문에 本研究에서는 除外한다.

2. 理論的 背景

人間은 對話的 存在라고 할만큼 人間關係에서 對話의 交流는 그 本質的 要素가 된다. 古代 哲人들은 「對話社會의 對話人이 되어라」라고 主唱하였다. 왜냐하면 對話는 理解를 낳고 理解는 和睦을 낳고 和睦은 幸福을 낳기 때문이다. 그들의 말속에는 다음과 같은 表現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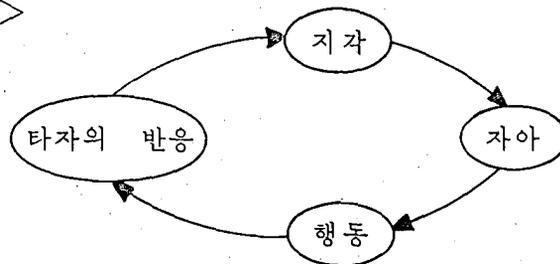
「悲劇은 對話의 斷絶이다. 孤獨은 對話의 缺如다. 誤解란 對話의 不定이다. 사랑은 對話의 充滿이다. 友情은 對話의 交流다. 幸福은 對話의 完成이다.」 「남과 對話하지 않는 사람들의 性格은 排他的이고, 獨善的이고, 利己的이고, 偏狹하고, 고집불통이고, 교만하다. 남과 對話를 잘하는 사람들의 性格은 활달하고, 너그럽고, 開放的이고, 理解心이 많고 協同的이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言路가 막혀버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야 말의 길이 트인다.」는 것이다. 나아가 對話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의 立場, 남의 處地가 되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나의 주장과 나의 입장만 고집하면 對話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論理이다. 이러한 論理는 個人的 次元을 넘어서서 集團的次元, 國家的次元에서도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社會的 交流 (social exchanges)란 어느 일방이 타방을 相對로 하는 의도적인 행위와 이에 대한 타방의 反應으로 이루어지는 社會的 역동과정이다. 따라서 相互交流가 이룩될려면 먼저 相互交流의 당사자로 등장하게 되는 자신 (ego) 과 타자 (alter) 를 理解해야

하고 나아가 이들간에 이루어지는 相互作用의 性質을 理解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들이 ① 特定 相互作用을 이루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성향이 무엇인가를 把握해야 하고 ② 特定 相互作用이 일어나게 되는 狀況의 特性이 무엇인가 理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微視的인 社會心理學의 立場에서 보면 사람들의 相互作用을 構成하고 있는 基本 要素로서는 대인지각 (인상형성), 言語 (意思疎通의 手段으로서 象徴體系), 意思疎通 (뜻을 交換하는 過程) 등을 들 수 있다. 相互交流 過程을 暗示하고 있는 <그림 1>에서 特定個人의 行動에 대한 타자들의 해석이나 타자의 反應에 대한 特定個人의 지

<그림 1>



각은 결국은 象徴的 意味로 이루어지는 것이다.³⁾ 사람들 사이의 相互交流에 있어서는 자신과 타자가 서로서로 상대방에 대한 행위의 對象으로 삼는다는 것은 非社會的 객체를 행위의 對象으로 삼는 것과는 큰 差異가 있다.

① 다른 사람을 對象으로 한 행위의 結果는 그 행위에 대한 타자의 反應 여하에 달려있기 때문에 타자의 可能한 反應行爲에만 관심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그 反應行爲에 絶對적인 影響을 미치는 타

註 3) J.W.Kinch, "A formalized theory of the self-concep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963. Vol.68, pp.481-486

자의 期待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問題에 더 신경을 쓴다.

② 特定 社會體制 속에서 일어나는 相互交流 속의 상대방에 대한 期待는 결국 相互補充的(reciprocal)이다. 즉, 내가 남의 의도에 신경을 쓰는 것과 같이 남도 나의 의도에 신경을 쓴다는 것이다. 이때에 나의 行動에 미칠 남의 反應을 내가 計算하고 豫測하는 것을 可能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反應에 관한 現實的인 蓋然性과 그 反應의 나에게 대한 意味라는 두 次元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一貫性이 確保되어 있어야 한다.

③ 社會的 相互作用의 基礎에 관한 理想의 論議를 前提로 볼때 社會的 相互交流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自我意識을 가지고 있는 相互作用의 두 당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공유된 生活經驗과 공통된 目的이 있어야 되며 이런 바탕 위에서 당사자들 간의 目的하는 바에 있어서 差異點이 相互作用의 觸發要因으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南北韓間의 交流過程에다 대입시켜 보면(表:1) 交流가 成立되기 위해서는 대인지각(인상형성·인간상), 言語, 意思疎通等의 3가지 면에서 公히 共通性和 理解의 일치를 必要로 한다. 그러나 南北韓間에는 이러한 3가지 要素가 모두 相互否定的으로 評價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基本的 問題解決이 선행되지 않는한, 진정한 意味에서의 南北交流란 앞으로도 크게 期待하기 어렵다. 적어도 장구한 시간을 두고 心理的 社會的 條件의 成熟을 計劃하고 주도해야 할 것이다.

<表 1 >

相互交流의 基本的 要素에 대한 評價

區 分	韓 國	北 韓
인 상 형 성 (對南 北韓觀)	北韓에 대한 否定的 態度 와 北韓觀 (맹종성, 暴力性 排他性, 非人間性等)	韓國에 대한 否定的 態度 와 「南朝鮮」觀 (괴뢰성, 종속성, 제국주의적 부패성 등)
言 語 象 徵	意思疎通의 手段, 文化 暢 達·文化 蓄積의 機能 중 시	政治的 도구, 동원수단, 대 중조작 機能 強化
意 思 疎 通 (目 的)	民主的 普遍的 價値 追求, 段階的·漸進的 協力, 民族 同質性的 회복, 民族 和合 民主 統一	主體思想 志向의 政治的 통합 優先, 「南朝鮮 해방 鬭爭」, 武力 적화 統一

Gouldner 는 호혜원칙이 人間關係를 규제하는 가장 基本的인 要
 因이라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여러 文化圈의 제약을 초월하는 하나
 의 普遍規範이라고 主張하고 있다.⁴⁾ 물론 이 호혜원칙이 어떤 형

註 4) A.W.Gouldner, "The norm of reciprocity: A preliminary
 state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60, Vol.
 25, pp.161-179 ; 社會的 相互作用을 交換理論의 觀點에서 說
 明하고 있는 代表的 學者 가운데 P.Blau, G.Homans, J. Th-
 ibaut & H.Kelley 등을 들 수 있다.

태로 生活 속에서 表現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각 文化圈에 따라서 差異가 있다. 이는 주는 것과 받는 것의 價値評價가 결국은 文化的인 脈絡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며 이 양쪽의 價値가 반드시 동일 次元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주는 것은 經濟的인 次元에서 評價될 수 있는 반면에 받는 것의 評價는 非經濟的인 次元, 人道的 次元, 政治的 次元 등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Homans도 社會的 相互作用을 주로 代價報償의 모형으로 把握하고 다음과 같이 相互作用에 관한 基礎的인 명제들을 提示하고 있다.⁵⁾

① 어떤 사람의 特定行動이 보상되면 그 사람은 그 행동을 반복할 可能性이 커진다.

② 特定行爲가 과거에 보상되었던 行爲에 유사하면 할수록 그것이 취해질 可能性은 커진다.

③ 特定行爲의 價値가 크면 클수록 그 行爲가 취해질 可能性은 커진다.

④ 사람은 자기의 行爲에 대하여 기대했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면 그 行爲를 合理化하려 들거나 화를 내게 된다.

Homans는 이러한 명제가 인간의 基礎的 社會行動을 說明하는데

註 5) G. Hamans, Social Behavior : Its Elementary Forms (Chicago :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1)

있어서 基本이 된다는 것이다. 이 理論은 報償과 代價의 概念을 통해서 特定한 相互作用이 시작되고 維持되는 理由와 特定 相互作用의 당사자들이 느끼는 불만의 소지등을 糾明하는 데 貢獻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相互作用 당사자들의 복잡한 心理的 동기를 報償과 代價라고 하는 다분히 經濟的인 概念으로 把握하려고 하는 데서 그 限界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現代社會에서는 經濟的 報償도 重要하지만 政治的 目的과 精神的 報償이 그 비중을 더해가고 있기 때문이다.⁶⁾

註 6) 全炳梓, 社會心理學 (경문사, 1981), pp.372-400

3. 交流戰略 構想의 大前提 設定

南北間 交流戰略의 大前提는 과연 무엇인가? 南北間 交流戰略의 構想은 그 大前提가 과연 무엇이어야 하는가 라는 問題意識에서 出發해야 한다. 즉, 南北韓의 相互交流를 實際로 할려고 하는가? 아니면 그냥 하려는 척 할려는 것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숨김없는 대답이 무엇인가가 前提되지 않으면 안될것이다.

지금까지 南北韓은 다같이 南北關係改善과 民族의 平和的 統一을 政治的 目標로 내세워 왔다. 비록 民族統一의 구호속에 숨겨진 政治的 의도가 전혀 다를지라도 民族의 再統一을 외면하는 政治的 要求란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은 바로 統一의 當爲性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난날의 南北韓關係와 統一에 대한 論議가 자칫 體制의 正當性 主張에 利用되어 왔는가 하면 때로는 勞力運動의 口實로, 때로는 政權維持의 妥當性 造作을 위해서 活用되어 왔다. 그리고 그럴때마다 爭點의 核心이 흐트러져서 一般사람들의 意識을 混亂시켰던가, 政權機關에 대한 불신을 조장시켰다는데 하나의 큰 問題가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現象이 北韓社會에서 더욱 심각하였다는 것은 두말할 必要도 없다.

北韓이 내세우고 있는 統一論議의 戰略的 基本은 소위 「南朝鮮 解放」이라고 하는 武力赤化統一路線이다. 그리고 이러한 解放戰略과 대남적대행위가 唯一體制를 維持하고 金日成個人崇拜와 政權相續을 劃

策하는데서 最大한 活用되어 왔다는 사실이 南北交流戰略에서 重要한 변수가 되지 않을 수 없다는 데서 交流戰略에 있어서 大前提의 設定이 必要하게 된 것이다.

統一問題에서 한가지 分명한 것은 「어느 體制가 다른 體制를 戰爭으로 勝利」함으로써 成立되는 統一이란 이미 실현하기 어렵게 되었으며 따라서 平和的인 方法으로 統一을 追求할 수 밖에 없는 것이 現實情이란 점이다. 이는 分斷 獨逸이나 分斷 韓半島가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獨逸이 韓半島보다 먼저 交流를 試圖할 수 있었던 것은 分斷相對國과의 적대감정의 깊이에 달려 있었다고 할 수 있다. 南北韓도 分斷初期에는 비공식적으로 物物交換을 하였고, 北韓의 電力使用에 대하여 代價를 일부 物자로 提供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戰爭挑發로 인한 同族相殘이 계기가 되어 對話나 交流의 斷絶은 물론 同族間의 적대적 關係를 永久化하게 하였고, 北韓의 대남 “게릴라” 運動은 물론이려니와 韓國의 「反共法」과 反共政策도 南北韓의 對話와 交流를 提議하는데 제동역할을 하였다.⁷⁾

이런 問題와 關聯해서 第5共和國 政府는 보다 積極的이고 現實的인 입장과 主張을 천명하고 있다. 1982年1月22日 全斗煥大統領은 「南北韓 基本關係에 관한 暫定協定締結」提議(’82年度 國政演說)를 통하여 「상대방 체제인정, 내정불간섭, 휴전체제유지, 相互交流協力을 통한 社會開放 推進」을 천명한 바 있으며 1984年12月

註 7) 國土統一院 (1978 a), pp.72-73

4日 統一院長官은 東亞日報와의 特別會見에서 南北韓關係는 民族內部의 「두개의 政治的 實體間關係」로서 統一對話의 상대로 「北韓에 事實上的 政權當局이 存在하고 있으며 그 存在를 理解한다」라고 公開적으로 밝힘으로써 對北關係에서 北의 實際的 存在를, 統一國家를 이룩할때 까지의 과도적, 잠정적 關係로서 인정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그러나 北韓의 입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交流相對者로서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 즉 現實의 客觀的 理解에 바탕을 둔 現實認定→存在認定→體制·政權認定이란 도식의 성립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南北韓 交流戰略 및 그 方案摸索에 先行해서 論議되어야 할 大前提條件의 設定이 問題되는 것이다.

그것은 첫째 統一自體에 대한 우리의 基本構想을 設定하는 일이다. 가장 중요한 政策的 決定은 ① 어떤 形態의 統一을 國家政策 目標로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고, ② 그 다음은 그 目標達成을 위하여 어디까지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⁸⁾

現在 政府가 취하고 있는 公式態度는 「先平和定着, 後統一」이다.⁹⁾

註 8) 李相禹, 「機能主義統合理論과 南北關係改善方案 研究」, 統一政策 2권1호(國土統一院, 1976.4), p.244

註 9) 1974.8.15 당시 朴正熙大統領은 광복절 제 29주년 경축사에서 「平和統一 3大基本原則」 提示: 平和定着을 위한 상호불가침 협정 체결, 상호문호개방과 다각적 交流와 協力 促求, 토착인 구비례에 의한 자유총선거

즉 統一보다 더 급한것이 韓半島에서 戰爭再發을 막고 制度化된 平和를 確保하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平和定着과 統一推進은 시계열상으로 서로 連結되지 않는 서로 다른 政策目標이고 따라서 그 政策을 遂行하는데 있어서의 행위선정기준도 다르다. 統一은 政策目標로 할 때는 소위 機能主義統合理論이 提示하는 統一促進條件의 確保와 促進行爲를 따라야겠지만,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이와 배치되는 行爲를 택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統一을 지상의 目標로 할 때는 南北間의 均衡있는 發展과 相互軍事力 감소등이 바람직하겠지만,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北을 압도하는 經濟成長과 北의 戰爭挑發을 抑制할 만한 充分한 軍備의 確保가 必要해 진다. 따라서 現在의 狀況에서 平和定着이 최상의 大북정책으로 되어 있는 한, 統一을 겨냥한 南北關係의 改善策은 그 限界성을 면할 수가 없다는 論理에 빠지게 된다.

둘째問題는 南北韓交流를 實際로 實行하여 소기의 效果를 成就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先進的 政治手段的 次元에서 하는 척 하려는 것인가? 그 입장을 設定하는 일이다.

接觸(간접, 직접) - 對話 - 對話合意 - 協約締結 - 協約遵守制度化 - 交流 - 協力 - 和合·統一의 過程을 相對方을 前提로 하는 역동적 過程이다. 이는 일방적이 아니고 상상적인 성격을 띤다. 따라서 일방의 誘導, 努力, 생각만으로는 성립될 수 없다. 상대방이 응해줘야 한다. 이렇게 볼 때 南北韓이 實際로 對話→交流協力→統一實現이란 段階的 漸進的 過程을 實現하기를 熱望한다면 적어도 다음과 같은 前提條

件들이 必要하게 된다. 이러한 條件은 南北韓 공히 같은 입장이 될 수 있게끔 雙方의 接近이 要求된다.

① 歷史的 現實을 직시하고 現實의 인정에 根據하여야 한다. 이는 現實에서 出發하여 接觸試圖→交流實踐→同質性擴大→統一理想의 實現이라는 契機的 段階를 밟아야 한다. 過去의 經驗에 비추어 보면 北韓이 1972年 7·4 南北共同聲明에 의거한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을 中斷한 이후 서울과 平壤을 오가는 새로운 南北接觸→第1次經濟會談→第8次南北赤十字會談(1月開催豫想)에 응해오기 위해 準備하는데 所要된 期間이 무려 12年이 걸렸다는 事實을 想起할 必要가 있다. 이 12年이란 期間에 北韓은 韓國을 따라잡기 위한 投資와 建設에서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政策轉換이 일어났음을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볼때 交流協力은 相對方의 準備狀態와 現實的 處地를 勘案한 提議만이 그 反應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② 相對方의 深部를 자극하지 않는 範圍內的 限定的 接觸(對話 등)을 充分히 가져야 한다. 즉 상대방이 두려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예컨대 1972.8.30 - 1972.10.24間 南北赤十字本會談이 서울-平壤에서 3회에 걸쳐 開催되는데 所要된 期間은 1971年 8月 12日 韓國赤十字社의 會談提議를 基準으로 해서 第1次 本會談이 열리기까지 豫備接觸(5次), 豫備會談(25次), 實務會談(16次), 實際연락사무소설치, 직통전화가설 등 1년이란 期間이 걸렸다는 過去 經驗에서 앞으로 展開될 文化交流의 實踐方法을 배워야 한다.

③ 秘密主義, 秘密原則이 雙方의 諒解하에 遵守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共產主義者와의 會談이나 交流에서는 더욱 必要한 事項이다. 1972年 南北對話의 經驗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南北調節委員會와 南北赤十字會談을 成功시킨 것은 무려 5個月間에 걸친 南北間 責任者와 실무자 擔當者間의 秘密接觸, 秘密相互訪問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過去の 經驗에서 나타난 現象은 實質的 南北會談이 展開된 시기에는 극소수의 當局者가 參席하였다. 즉 北韓에서도 「南北調節委員會」, 「총리회담 開催를 위한 實務會議」, 「體育會談」, 「赤十字會談」등은 최하 2인에서 최고 6명정도까지 代表를 내보내었다. 그러나 그들은 宣傳的 政治會談에서는 大規模 연합전선형식의 代表者會議를 主張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實質會談에서는 政權次元의 소규모 정예분자에 의한 非公開會議를 主張하는 것이 北韓政權의 統一接近方法과 對話의 特徵이지만 반면에 外形상으로는 政治宣傳의 效果위주의 民族的 聯合勢力 형식(各 政黨社會團體, 各界各層 및 海外同胞 연석회의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즉 實質的 會談過程에는 政權代表인 소수 정예분자의 非公開 接近法을, 形式的 會談에는 宣傳위주의 大規模 위장단체의 「聯合戰線」方式을 취하는, 말하자면 對話戰略上的 2중구조 내지 兩面性을 띠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이다.

지난 40餘年間的 北韓의 統一戰略과 南北對話에 임하는 北韓政權의 實利追求에 있어서 드러난 양상은 대부분 國內外 宣傳效果와

군중결속의 방편으로 볼 수 밖에 없는 政治集會 形式의 聯合勢力 형성이었다고, '70年代에 있었던 「南北調節委員會」와 같은 實質的 統一對話는 지극히 희소한 事例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政治 宣傳위주의 聯合勢力 구축이라는 형식적 선전대결이후에는 지극히 희소한 實質的 對話가 있을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¹⁰⁾

④ 양측의 理解關係가 합치되는 範圍내에서만 實際的인 相互交流가 可能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어떤 分野를 包括하는 廣範한 대상설정보다도 特定分野의 特定主題를 狀況의 變化에 따라 수시로 提起하는 方法이 보다 바람직 할 것이다.

⑤ 이질적 體制間的 모든 交流는 政權當局者의 政治的 協商이 先行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政治協商은 아니라 하더라도 政治的으로 理解關係가 합치되고 雙方間的 合意와 協約이 이루어지고 合意事項의 遵守合意가 制度化되지 않고서는 實質的 交流가 成立될 수 없다. 극단적으로 보면 雙方間的 政治的 協約이 없는 狀態에 있어서는 民間部門의 非公式的 接觸이 때로는 간첩, 용공, 반동분자 등의 낙인으로 배척받아야 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南北間交流實現을 摸索하는 過程은 무엇보다도 過去의 經驗的 事實에 바탕을 두고 問題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方法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물론 政治支配者의 理解關係라던가 行政實務者, 戰略專門家의 시각도 重要하겠지만 實際的 交流를 現實的으로 熱望한다면 常識이 통용되는 「보통사람들」의 목

註 10) 崔平吉, 「北韓의 南北對話展開樣相 分析」 통일논총 4 권 1 호 (국토통일원 1984. 6), p.20

소리가 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社會雰圍氣와 文化的 風土가 先行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이는 결국 交流戰略構想은 當爲性과 事實性과 實踐性이 民族共同體的 一體感의 바탕위에서 어떻게 均衡的으로 조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가 라는 問題가 前提되어야 하겠다는 뜻이다.

以上과 같은 觀點에서 볼 때, 統一의 當爲性과 이의 接近方法으로서 南北交流戰略에 관한 論議는 적어도 세가지 측면에서 동시에 提起되어야 한다. 즉 南北에서 그동안 형성된 社會的 現實을 우선 客觀的으로 評價해야하는 問題와 더불어 分散이라는 事實을 統一意志에 의하여 여하히 극복하는가 하는 問題, 그리고 分斷克服의 民族史的 主體로서의 使命感을 完遂하기 위한 中間段階로서 南北韓이 南北交流에의 합의점에 여하히 도달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그것이다.

다시말해서 統一의 問題는 事實性과 當爲性 그리고 實踐性이 民族共同體的 一體감의 바탕위에서 어떻게 조화적으로 타결될 수 있는가 하는 問題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統一認識理論은 歷史속에 몰입되어 있는 「우리의 處地」를 主體的으로 把握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런면에서 볼 때 統一의 當爲性과 交流擴大의 必要性은 民族은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원상복구의 의미에서 보다 分斷國家主義를 초월하는 統一民族主義에 바탕하는 近代的 民族國家를 建設해야 한다는 民族史的 소명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

4. 文化交流戰略의 構成要素

文化交流戰略構想을 위해서는 過去의 歷史的 經驗을 통해서 나타난 交流의 障礙요소와 交流可能條件 등이 도출되고 이를 바탕으로 文化分野 가운데서도 交流가 可能한 分野를 比較하고 이의 實際的 交流가 이루어졌을때 결과하게될 이해득실 (效果分析)이 前提되어야 할 것이다.

가. 文化交流提議의 來歷

지금까지 南北韓 사이에서 提起된 바 있는 文化交流提議의 來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特徵을 나타내고 있다. 1954.4.27 以後 70年代 初까지는 주로 北韓에 의해서 提起되어 왔다. 그동안 北韓에 의하여 提議된 文化交流의 內容을 보면 1960年代까지는 ① 住民의 通行 및 書信 自由, 科學·文化交流, ② 南北의 個別 作家들과 北의 作家同盟과 南의 文藝團體들 사이의 相互 書信 및 作品交換, ③ 체신우편연락 實現을 위한 체신대표회담 提議, ④ 이산가족 및 친지들의 편지交換問題協議 提議, ⑤ 문화사절의 왕래, 科學·藝術·體育 등 諸般 分野에서의 交流 提議, ⑥ 國際的 체육축전에 共同進出 提議, ⑦ 南北記者 交流 및 영화필름교환 提議 등을 일방적으로 提議해 왔으며 1970年代 初에는 南北韓 文化·藝術·體育등 多方面的 交流와 協助, ⑧ 赤十字會談에서의 討議案件으로 이

산가족들과 친지·친우들의 자유로운 왕래 및 相互訪問 實施問題, 자유로운 書信去來問題를 學論한 적이 있다. 그러나 北側의 이러한 提議는 모두가 김일성 1人體制의 正統性을 造作하기 위한 政治的 宣傳 도구로서 使用된 政治的 策略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北側의 文化交流提議는 實際로 實踐되리라는 期待보다는 韓國側이 不應할 것을 前提로 한 위장된 허위선전으로 일관된 것이었다.

이러한 北側의 宣傳的 僞裝攻勢와는 대조적으로 70年 以後부터는 韓國이 國內外的으로 造成된 분위기에 相應하는 現實的인 文化交流를 여러차례 提議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北側의 反應은 否定的이던가 아니면 묵살되고 말았다. 韓國은 南北赤十字會談으로 現實的으로 南北間에 交流가 이루어진 以後인 1976年, ① 고미술품 相互交換展示 및 고고학자의 交流를 提議하였고, 1982年 2月 國土 統一院長官의 「20個示範實踐事業」 提議를 통하여 ② 이산가족의 郵便交換과 相逢實現, ③ 설악산·금강산지역 共同觀光地 開發, ④ 각 계인사의 相互親善訪問 및 자유왕래, ⑤ 民族文化의 繼承·發展을 위한 民族史 共同研究, ⑥ 相互正規放送 자유청취 허용, ⑦ 雙方記者의 자유취재활동 보장등을 提議하였으며 文公部長官은 1981年 11月, ⑧ 미술사 部門의 研究와 展示의 交流와 1984年 11月, ⑨ 우리말, 傳統民俗文化, 天然紀念物등 民族遺産의 發掘 保存 研究를 위한 協力을 提議하였다.

이러한 現實的이고 實踐的인 韓國側의 提議에 대해서, 그 가운데는 이미 50,60年代 北側自信들이 提議한 內容들이 包含되어 있음

에도不拘하고, 이를 全面的으로 拒否한채 그중의 하나도 제대로 實踐에 옮겨지지 못하는 實情이다.

나. 文化交流阻害要素

그러면 이상과 같은 双方의 提議에도不拘하고 무엇 때문에 이의 實現을 보지 못하고 있는가? 이러한 文化交流阻害要素를 씩출·제거하는 作業이야말로 文化交流方法을 摸索하는데서 提氣되는 第1次的 作業이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하면 文化交流方案이란 文化交流의 阻害要素를 分析, 이를 해소시키는 과업인 동시에 南北韓間에 새로운 文化暢達의 條件을 摸索하는 創造的 過程인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提起되는 諸般交流阻害要素들은 결국 따지고 보면 그 모두가 歷史的, 社會的 產物로서 歷史性和 社會性を 띠고 있다는 事實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그 具體的 몇가지 阻害要素를 提起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統一接近의 差異

南北한 사이에서 나타나고 있는 統一接近方式의 差異, 統一接近 理念의 差異, 合意된 對話內容의 實效성에 대한 立場의 差異등이 南北間의 對話 및 相互交流를 阻害하는 根本的 要素가 되고 있다.

첫째, 統一接近方式에 있어서 南北韓은 顯격한 差異가 있다. 韓國

은 南北韓에 存在하는 理念과 體制의 差異를 認定하고 體制 및 理念 差異를 解消함으로써 相互理解와 信賴의 氛圍氣를 造成하기 위하여 段階的인 接近方式(즉 人道的 → 非政治的 → 政治的 接近方式)을 原則으로 한다. 北韓當局은 南北을 갈라놓은 本質的 差異를 불문하고 南北間에 直線的이고 全般的인 解決을 同時에 追求하려는 直接協商態度를 堅持하면서 過渡的으로 聯邦制를 提唱하는가 하면 對話가 상당히 進展된 뒤에 提起될 問題(平和協定과 軍備縮小등)를 우선적으로 解決할 것을 企圖하고 있다. 나아가서는 赤十字會談에서 마저 政治的 問題의 解決을 고집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그 進展을 보기란 어려운 實情이다.

둘째 統一理念面에 있어서 南北韓 隔差가 너무 懸격하다는데 問題가 있다. 韓國은 民主的 基本秩序를 바탕으로 伸縮性 있는 方法을 研究하여 提示하고 있다. 北韓에서는 “레닌”의 平和共存理論이나 毛澤東의 人民革命理論을 斷念하지 못하고 있다. 적어도 正統的인 民族概念에 의한 統一政策이 北韓當局에 의하여 正식으로 決定된 證據는 보이지 않는다.

세째 對話를 통한 合意形式이나 合意된 것의 實效性 自體에 있어서 南北間에는 立場의 差異가 豫想된다. 韓國은 南北對話를 통해서 될 수 있는한 原則的인 事項에 관한 合意를 追求하고 있으며 多意的인 合意形式을 통하여 實質的인 意思合意에 置重하고 있다. 北韓은 合意된 原則에 따른 細部事項에 있어서 위반할 可能性이 많으며 多意的인 合意에 관한 상이한 解釋權을 濫用할 念慮가 있고

나아가 實質上의 意思合意보다도 政治的 宣傳에 利用할 개연성이 능후하다. 南北交流에 있어서도 合意成果를 期待할 수 없으며 따라서 政治的 政策轉換이 뒷받침된 치밀한 協商戰略이 要求되는 狀況이다.

(2) 政治理念과 體制의 差異

南北韓間의 “이데올로기”와 社會體制的 差異는 相互交流를 沮害하는 構造的 要素가 되고 있다. 開放性을 指向하는 韓國社會와 閉鎖性을 指向하는 北韓社會가 相互接觸을 이룩하고 交流를 實踐한다는 것은 그 出發부터 서로 서로가 어려운 상대자로 認識된다. 왜

<表 2> 南北韓 社會의 體制 및 社會文化構造의 差異

區 分	北 韓	韓 國
體 制	閉鎖的 體制	開放的 體制
文化 目標	好 戰 性 權 威 性	平 和 性 民 主 性
價 值 指 向	集團(團體) 指向性 “이데올로기” 性	個人指向性 能 率 性
階 層 構 造	劃一的 黨性 閉鎖的 硬直性	多元的 成就性 開放的 柔軟性
性 格 特 性	出世指向性 階級主義的 性向 黨的 忠誠追求	餘暇指向性 民族主義的 性向 自我實現性 追求
民主主義理念	人民民主主義 所有의 平等主張	市民民主主義 機會의 保障強調

나하면 相互間에 追求하는 人間型, 社會型, 價値觀의 內容이 相互排他的이고 相互矛盾的 關係에 있기 때문에 合意의 餘지가 그만큼 협소할 수 밖에 없다.

(3) 言語의 異質化와 社會化의 差異

南北間의 言語의 異質化와 社會化의 差異는 相互交流를 沮害하는 文化的 障害要因이 되고 있다. 南北韓은 分斷以後 40年에 걸쳐 北韓은 全體主義 共產主義文化로 南 韓은 自由民主主義文化로 굳혀왔다. 이러한 異質的 文化形成으로 인해 南北韓은 政治的 象徴이나 政治文化, 政治體制, 社會規範과 慣習, 言語使用 등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와 異質化 현상이 이루어졌다.

韓國이 歷史의 傳統을 尊重하고 客觀化하고 있는데 대하여 北韓에서는 歷史와 傳統을 歪曲하여 이를 體制正統性的 道具로 삼고 있다. 記念建造物을 비교해 보면 韓國에서는 忠武公, 柳寬順 또는 顯宗사 등 歷史中心의 銅像 또는 建造物을 記念하고 있는데 반하여 北韓에서는 오로지 金日成 家系偶像化를 目標로 그 自身の 銅像 또는 그의 生家를 保存 記念하고 있다.

言語의 表現方法과 概念이 달라졌다. 특히 政治的 概念에는 현격한 異質化가 이루어졌다. 統一이란 말은 韓國에서는 國土民族의 再結合 혹은 自由·多數意思에 의한 統治形態 選擇의 意味로 通用되는데 北韓은 「南朝鮮解放」 또는 「南朝鮮 人民解放」의 意味로 쓰인다. 民主主義란 用語에 있어서도 韓國은 自由民主主義의 意味로 쓰

이지만 北韓은 “프롤레타리아”民主主義 또는 “부르조아”에 대한 “프롤레타리아”獨裁란 意味로 使用된다. 人民이란 말은 韓國에서는 生産手段 有無에 關係없이 全體國民의 뜻으로 쓰임에 반해 北韓에서는 生産手段을 소유치 않은 “프롤레타리아”의 뜻으로 쓰인다. 協商이란 用語도 南韓의 경우 相互理解 또는 相互妥協에 의한 紛爭解決方式의 意味로 쓰이는데 北韓에서는 非武力的 方法에 의한 戰爭의 意味로 使用된다.

社會意識의 社會化過程에 있어서도 韓國에서는 全人格教育을 통하여 國家意識과 民族主體性, 創造的인 힘, 開拓精神, 協同心, 國家에 대한 奉仕心 등을 涵養하며 民主主義的 人間型을 追求한다. 北韓에서는 革命的 人間型의 創造를 目的으로 金日成唯一思想과 共產主義思想의 鼓吹를 目標로 하기 때문에 盲從的·集合的·暴力的인 性格이 形成되고 있다.

(4) 北韓의 合作原理와 對話先行條件의 固守

北韓은 南北對話와 相互交流에서 으레히 合作과 交流, 또는 合作과 團結이란 用語法을 固守하고 있는데서 南北間의 接觸과 交流를 源泉的으로 制約하고 있다.

北韓 共產主義가 韓半島의 分斷狀況에 이 原則을 어떻게 適用할 것인가는 앞으로의 「交流있는 南北韓 時代」의 特徵을 좌우하는 關鍵이 되는 것이다. 北韓의 對南統一政策을 가장 적절히 표현하고 있는 用語法 가운데 하나가 바로 「合作과 團結」, 「合作과 交流」

이다. 그들이 使用하는 「合作과 團結」은 그들의 國語辭典이나 韓國社會의 概念에서 말하는 語意를 가지고서는 그 참뜻을 理解할 수 없다. 원래 合作과 團結, 또는 合作과 交流는 北韓의 獨創的 出典이 아니라 “레닌”의 用語法을 모방한 것이다. “레닌”은 “소비에트”화된 中央部 “러시아”와 변강 “부르조아”民族國家들의 各異性을 解消하고 “불세비키”革命으로 喪失된 “러시아”의 國家的 全一性 回復 (“소비에트”적 一國化)를 위하여 諸民族의 “시비리제니에” (接近)와 “스리야니에” (融合)를 主張하였다. 北韓이 主張하는 合作과 團結, 合作과 交流는 바로 이를 模倣·適用시킨 것이다. 즉

① 「北과 南의 合作과 交流는 南朝鮮 人民들로 하여금 敬愛하는 수령의 偉대한 主體思想의 正當性을 깨닫게 할 것이며 金日成이 마련해준 共和國 北半部 社會主義制度의 참다운 優越性을 認識하게 할 것이다.」

② 「民族的 大團結의 原則은 美 帝國主義者들의 民族分裂政策과 民族離間政策을 파탄시키고 온 民族이 反美救國鬪爭의 기치밑에 굳게 뭉쳐야 할 革命鬪爭의 客觀的 要求를 反英하고 있다.」¹¹⁾

이 引用文에서 볼 때 北韓 共產主義의 合作과 交流는 北韓으로부터 社會主義의 붉은 홍수를 들어밀겠다는 “스탈린”方式의 범주이며, 民族的 大團結은 소위 「反帝民族解放鬪爭」, 곧 「反帝·反封建 人

註 11) 「主體思想에 基礎한 祖國統一論」, (平壤: 社會科學出版社, 1975).

「民主主義革命」이란 이름의 「南朝鮮革命」을 위해 韓國에 接近하여 統一戰線을 形成하겠다는 戰術을 바탕으로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北韓이 이러한 基本的 立場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固守하는 한, 韓國이 追求하는 「交流協力」의 目的과는 本質的 面에서 合意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70年代의 南北赤十字會談의 經驗에서 提起된 바와 같은 北韓의 소위 「先行條件充足」原則은 基本的으로 南北關係를 改善함으로써 緊張緩和 → 統一指向의 새로운 文化創造 → 民族史的 使命을 完遂하겠다는 意思보다는 南北關係 改善이란 미끼로 宣傳煽動과 心理戰을 구사하여 唯一的 支配體制의 正統性을 造作하고 住民을 統制하려는 統治手段으로서 意義가 우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北韓은 70年代의 赤十字會談에서 人道次元 아닌 政治性 높은 問題를 앞세워 會談의 性格을 모호하게 만들었고 결국 一方中斷의 事態로까지 몰고갔었다. 北赤은 당시 「우리나라의 人道主義事業은 統一問題와 分離하여 다룰 수 없으며 오로지 統一問題의 일부로 다뤄야 한다」는 捷변을 내세워 雙方合意된 議題討議를 一方的으로 拒否하면서 議題合意에 「先行條件」으로 ① 反共法, 國家保安法 등의 廢止, ② 反共活動의 禁止, ③ 「事業」參加次 南韓에 오는 離散家族과 親戚 當事者는 물론 協助者 關係者에게 言論, 出版, 集會, 通行의 自由賦與, ④ 身體 및 所持品에 대한 不可侵權의 認定, ⑤ 駐

<表 3>

南北赤十字會談日誌 (71 ~ 77)

區 分	回數	日 字	內 容
提 議		71. 8.12	韓赤 崔斗善總裁 離散家族찾기運動 提議
受 諾		71. 8.14	北赤 손성필委員長 受諾
派遣員接觸	5	71. 8.20 ~ 9.16	場所：板門店
豫備會談	25	71. 9.20 ~72.8.11	1次本會議 平壤, 2次 서울開催, 20回線 電信電話 設置
議題問題 實務會議	13	72. 2.21 ~ 6. 5	離散家族 住所, 生死確認, 訪問, 相逢實現 議題合意
進行節次 實務會議	3	72. 6.27 ~ 8. 9	第1次 本會議 開催場所 協議
本 會 議	7	72. 8.29 ~73.7.13	8次會議 金英柱 聲明으로 무산
代表會議	7	73.11.28 ~74.5.29	實務會議 運營 및 節次問題
實務會議	25	74. 7.10 ~77.12.9	北韓 “팀스피리트”訓練 理由로 拒否, 對話 完全中斷

韓美軍을 撤收시킬 것등의 터무니 없는 提議를 반복함으로써 전혀 非現實的이고 一方的인 主張과 宣傳的 攻勢만 되풀이했었다. 이것은 表面的 公式發表와는 달리 內面的으로는 會談을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意思表示로 밖에 解釋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의 國民意識 調查結果에서도 잘 대변되고 있다.¹²⁾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사이에 實施된 「大學生, 産業勞動者,

註 12) 최평길, 앞의 글, pp.21~22 및 「韓國 大學生, 産業勞動者 高校生, 一般인의 共產圈 및 統一安保에 관한 意識調查」, (政府刊行物, 1977, 1978, 1979, 1980).

<表 4>

統一의 窮極的 實踐要領 (%)

項目	區分		
	大學生	産業勤勞者	一般國民
① 南北韓 양쪽만의 妥協	55.8	43.0	46.9
② 大韓民國의 主張대로	26.3	21.4	-
③ 美·日·中·蘇의 妥協	10.4	8.6	16.8
④ UN의 仲裁	6.0	18.7	24.3
⑤ 北韓의 主張대로	1.5	2.2	-
⑥ 戰爭手段	-	-	11.9

<表 5>

南北對話의 再開要件 (%)

項目	區分	
	大學生	高校生
① 北韓指導層의 誠實한 對話態度	34.64	34.12
② 北韓側의 好戰的 南侵拋棄	25.36	32.70
③ 相互利益 追求의 과도한 要求抑制	24.34	14.62
④ 美·英·中·蘇의 仲裁	8.08	4.87
⑤ 大韓民國 指導層의 誠實한 對話態度	7.56	12.06

高校生, 一般人」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를 보면 ① 統一의 實踐 方案에 대해서 統一은 「南北韓만의 妥協에 의한 統一」이 되어야

한다는 見解가 높아지고 있다는가 하면 ② 南北對話의 再開要件으로서는 北韓側의 성실한 態度 내지 對南赤化戰略의 拋棄가 큰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고 判斷하였다.(表 4, 5 參照)

以上과 같이 볼 때 南北韓의 交流協力을 根本적으로 沮害하는 南北間의 差異와 異質的 要素, 그리고 敵對的 競爭關係를 相互調節하고 相互接近을 가능하게 하는 民族共同體 意識과 同質的 要素를 짧은 期間內에 形成한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할 수 없는 狀況이다. 그런만큼 實踐的인 文化交流의 成立可能性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根本的인 沮害要素를 감안하면서 現實狀況속에서 相互交流의 當爲性을 增大하고 交流實踐에 따른 效率性의 原則을 信賴할 수 있게 하는 가능한 條件들을 導出, 이를 신장시키고 축적하여야만 앞으로 文化交流를 實行할 수 있는 「文化會談」의 成立을 내다볼 수 있게 된다.

다. 文化交流 實踐可能要件의 導出

相互交流를 가능하게 하는 條件을 導出하려면 다소 現實과 유리되는 면이 있다손치더라도 葛藤主義的 立場에 서기보다는 機能主義的 立場에 섰을 때보다 可能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물론 여기서 어느 立場을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問題解決의 出發點으로 이러한 社會科學의 理論的 視覺을 援用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순서가 될 것이다. 즉 生存과 繁榮을 위해서는 相互依存性

— 相互交流 — 合意·均衡·調和·統合의 增大 — 相互協力 — 發展이란 社會過程이 不可避하다는 立場이기 때문이다.

機能主義者들은 社會有機體論에 연유하여 社會를 하나의 共同體로 묶는 힘은 構成員間에 形成된 機能的 相互依存性이라는 大前提위에 서고 있다. 그리고 이 分野의 理論은 거의 모두가 政治적으로 非敵對關係에 있는 國家間的 統合을 對象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分斷國이라는 特殊狀況에 놓여있는 南北韓의 關係에 이러한 理論모델들이 그대로 適用될 수는 없다. 다만 南北關係는 「1國2地域」, 「1國家2體制」, 「2國間關係」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야누스(Janus)의인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部分的으로는 機能主義統合理論의 思考가 妥當할 수도 있다. 다만 이러한 適用妥當한 국면에 국한하여 南北關係 改善 내지 南北文化交流 可能條件을 導出할 수 밖에 없다.

交流統合의 前提條件中 상당수는 人爲的 努力이 가해질 수 없는 「주어진 條件」들이다. 예컨대 地理的 연접성, 同質性的 相當部分과 統合經驗등은 이미 過去의 일로서 人爲的 努力의 對象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주어진 條件」은 차지하고 여기서는 改善possible한 몇가지 條件을 導出해 보기로 한다.¹³⁾ 첫째 條件은 同質性的 維持 및 改善이다.

註 13) 이상우, 앞의 글, pp. 239 ~ 241.

<表 6>

同質性 測定面數와 改善可能部門

同質性面數	現場	不變/可變性	改善對象
1. 富 또는 收入	비슷	可變	該當
2. 教育程度	비슷	可變	該當
3. 社會階層	困難	可變	該當
4. 宗 教	비슷	可變	該當안됨
5. 種 族	같음	不變	該當안됨
6. 言 語	같음	不變	該當
7. 血統認識	같음	不變	該當안됨
8. 政治理念	다름	不變	該當안됨
9. 態 度	다름	可變	該當
10. 價 值 觀	다름	可變	該當
11. 社會的 特質	다름	可變	該當

<表 6>에서 이러한 同質성을 維持擴大할 수 있는 要素를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種族, 血統認識은 不變要素로서 改善與否를 논할 수 없는 屬性이며 宗教도 改善與否를 논할 수는 없다.
- ② 可變要素 가운데 富 또는 收入, 教育程度는 일단 政策對象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視覺에서는 南北間의 生活程度差가 극심하여지면 接觸 - 交流 - 統一의 展望은 흐려진다. 최소한 韓國이 北韓보다 落後하여서는 안된다. 이 要素는 可變的인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努力으로 生活隔差가 심화하는 것

을 막아야 한다. (단지 機能主義的 立場에서 볼 때)

教育程度는 現在 南北韓이 거의 같은 水準이다. 대체로 中學校까지의 初等教育에 있어서는 北韓이 앞서고 大學에서는 韓國이 앞선다. 이 次元에서도 長期眼目으로 韓國이 落後하여 異質化되는 事態는 豫防하여야 할 것이다. 教育程度의 隔差가 심해지면, 交流 - 統一의 條件이 나빠진다는 것이다.

- ③ 社會階層의 同質化維持에는 問題가 많다. 앞서 논한 것처럼 分斷以前의 社會階層을 논한다면, 南北의 政治性格上 韓國이 上層所屬人口가 많고 北韓이 주로 下部階層所屬人口가 많았다. 그러나 지난 40年間の 독자적인 社會過程으로 分斷以前의 階層은 無意味해졌다. 北韓은 일부 黨僚 및 官僚 등의 貴族化가 進行되었지만 全般的으로 衡平的 社會構造를 形成하고 있다. 韓國에서는 社會的 階層隔差가 심하다. 이러한 狀態가 계속 進行될 때, 南北間의 社會階層 差異는 분명히 交流 및 統一의 沮害要素가 된다.

- ④ 同質性 維持에서 가장 問題가 되는 것은 政治理念, 態度, 價値觀, 社會的 特質에 관한 變數이다. 이 變數들은 모두 分斷에서 비롯된 異質化가 가장 많이 進展된 要素이다. 傳統的 同質性에 우선하는 “이데올로기”적 異質性의 強調는 새로운 世代에 갈수록 더욱 異質化할 可能性이 있다.

南北韓 각 부분에 支配的인 價値觀이 現在와 같은 극단적인 對立을 持續하는 한 이 異質化過程은 沮止시키기 어렵다. 그리고 韓

國이 追求하는 自由民主主義的 社會觀은 韓國의 存在理由와 直結되
는 것이므로 妥協의 對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價値觀 態度에서
의 異質化를 南北間의 妥協으로 改善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間接的 克服方法으로 民族的 同質性을 強調하는 方法이 있을 수 있
다. 따라서 北韓이 民族的 同質化를 회피하는 作業은 계속한다 하
더라도 앞으로의 交流成立을 위해서는 韓國만이라도 民族的 同質性
을 強調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統一을 拋棄하지 않는 한, 統
一의 前提로서의 南北間 同質性 維持는 不可缺少要素가 된다. 民族的
同質性의 認識을 높이는 課業은 장차 統合을 推進하는 過程에서 活
用되어야 할 同和力의 基礎가 된다는 점에서도 아주 重要한 課業
이 된다.

둘째 條件은 接觸의 增大가 交流協力의 前提條件이 된다고 하는
점이다. 그러나 현재 南北韓關係에서는 相互交流가 거의 없는 初期
的 狀態이다. 交流는 雙方의 合意가 先行되어야 가능하므로 北韓이
계속 거부하는 한, 交流의 增進은 어려워진다. 그러나 적어도 政策
方向으로서는 이 점에 焦點을 맞추어야 한다. 끈질긴 接觸을 벌여
야 하고 間接的인 第3國 經由의 接觸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세째는 相互間의 知識, 즉 認識의 거리를 단축하는 作業이다. 南
北韓은 모두가 상대방에 대하여 상반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러한
認識의 거리가 交流에 阻害作用을 한 것은 명백하다. 文化交流를
實踐的인 政策目標로 한다면 兩側이 다같이 南北韓觀에서 改善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실사 北韓이 韓國에 대한 認識提高의 노력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韓國만이라도 北韓에 대한 認識을 높이는 作業을 해야 한다. 國民 각자가 北韓社會를 더 상세히 理解하고, 北韓居住同胞에 대한 認識의 거리를 좁힐 때, 民族的 同和力의 上昇을 기대할 수 있고, 上昇된 同和力을 政府의 交流協力 努力에 密着시킬 때 그것은 강한 推進力을 發揮하게 되는 것이다.

네째는 機能的 利益을 強調하는 일이다. 이는 客觀的으로 評價할 수 있고 主觀的으로도 評價할 수 있다. 南北社會間의 機能的 補完性 내지는 相互依存性은 分斷以前에 있어서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40년간 分斷狀況이 進行되는 동안 南北社會는 스스로가 서로 상대방에 依存하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社會構造를 改編한 나머지 이제는 相互依存도가 거의 없어졌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도 南北社會가 統合되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公利的 利益은 대단히 크다는 사실을 認識해야 한다. 機能的 利益이 交流의 先行條件이 된다는 점은 非敵對的 2國關係에서의 論點이지만 敵對的인 分斷狀態의 關係에서도 機能的 利益은 交流協力の 前提條件이 될 수 있다.

위에서 檢討한 條件들을 綜合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 ① 南北間의 同質維持: 이를 위해서 經濟와 教育水準을 계속 높여 南北間의 隔差가 생기는 것을 抑制하고 社會內의 階層分化가 심화되어 社會內에 단층화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 ② 南北韓 交流: 南北文化 交流를 開始할 수 있는 길은 多方面的 接觸을 增大시키는 것이 必要하다.

③ 南北韓間의 認識距離 短縮 : 南北間의 認識距離를 좁혀나 가야 한다. 이를 위하여 教育과 弘報活動의 根本的 改善이 要求된다.

그리고 이에 덧붙여 이미 「交流戰略構想의 大前提 設定」에서도 言及된 바와 같은 諸般條件들이 添加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즉

- ① 現實的 認定과 過去 經驗的 事實의 考察
- ② 制限的 接觸(對話등)의 制度化
- ③ 秘密主義와 秘密原則의 遵守
- ④ 政權當局者間의 政治的 合意와 協約成立
- ⑤ 分斷國家主義를 超越하는 統一民族主義와 民族共同體의 一體感의 擴大 造成

5. 東西獨의 文化交流事例檢討

다음에는 東西獨의 經驗을 參考하면서 以上에서 論議된 文化交流 可能性條件을 전체로하여 南北韓文化交流에 있어서 實踐可能한 分野를 제기하고 이를 서로 比較하여 優先順位(理論적이고 잠정적인 意味밖에 없는 것이지만)를 決定하는 作業이 要求된다.

먼저 東西獨의 文化交流事例를 檢討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⁴⁾

經濟交流分野에서 부분적 交流와 接觸을 維持하던 獨逸은 1973年 「基本條約」이 발효된 이후 活潑한 接觸과 交流가 進陟되었다. 여기서 東西獨의 境遇에서 文化 分野交流事例를 살펴 보고 이를 韓半島의 文化交流實踐에서 提起될 수 있는 諸般問題點을 類推하는 參考事項으로 參照하기로 한다.

東西獨 基本條約 第7條의 追加議定書에서 西獨과 東獨은 文化交流에서 協力을 增大시킬 意圖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兩獨은 政府間 協定締結에 관한 協商을 벌리기로 한다고 規定하였다. 이 文化協定에 관한 교섭은 1973年 11月 21日에 시작되었다.

그러나 西獨의 演劇이나 東獨에서의 “오케스트라”의 客演은 몇년 이래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獨逸國家들 사

註 14) 國土統一院(1975 a), pp. 113 ~ 122; 國土統一院(1978 a), pp. 57 ~ 67.

이에서는 文化交流를 위한 努力이 推進되고 있다.

造形美術分野에서는 그 交流가 별로 없다. 그 理由로는 東獨에
는 무엇보다 「社會主義的 事實主義」가 優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東獨政權의 집권층의 變更으로 兩獨사이의 藝術家들 交流의
可能性이 높아졌다. 또한 두 나라 사이에 交流가 活潑하여질 可能
성이 있는 것으로는 전시회, 博物館 전시품의 교환전시등이다.

가. 教育 學術部門의 交流

1945年 이래 教育은 兩獨사이에서 매우 다르게 發展되었다.
두 獨逸國家들 사이에서의 思想的, 政治的, 社會的인 차이는 무엇보
다도 教育에서 비롯된다. 西獨과 東獨사이에서 지금까지는 學問研究
나 技術發展의 영역에서 公式的인 案內나 經驗의 交換은 없었다.
두 國家 사이에서의 情報交換關係는 대부분 사적인 것들이다. 그것
은 各學者들끼리의 消息傳達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대
개 양측의 專門書籍 및 雜誌들이 重要한 情報資料였다.

두 나라 사이에는 점차 學術的인 會議나 기타 學術모임에 서로
旅行하여 參加하게될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바이마
르”에서 열렸던 「괴테협회」의 會議를 除外하고는 兩獨의 共同主
催란 可能하지 않았다. 招請講演과 招請講義의 規定은 매우 중요한
學術上의 綜合協力問題이다. 東獨의 學者들은 西獨의 學校나 學術的
인 모임에 參席한다. 이것도 技術分野에 한하여는 많은 관심과 진

전이 있으나 “이데올로기”와 關聯된 人文社會科學系統에는 東獨이 不誠實한 態度로 나오기 때문에 交流가 制限되고 있다.

나. 交學 · 出版物分野의 交流

1960年代 中盤에 活潑하였던 文學分野의 接觸은 60年代末頃에 아주 후퇴하였다. 1970年代 초에야 비로소 東獨의 文學家들이 西獨 領土로 旅行하기 시작하였다.

① 東獨의 「Stefan Heym」은 1971年 늦가을에 西獨의 8個 都市에서 講演을 하였고 「Hermann Kant」도 1972年 초여름에 대부분 여러 大學都市들에서 東西獨에서 同時에 出版된 그의 小說에 關하여 講演을 하였다.

② 東獨에서 나타난 “베스트셀러”나 社會主義의 小說의 범주에 屬하는 많은 有名한 冊들이 西獨出版社에서 許可版으로 出版되었다.

東獨을 故鄉으로 한 많은 作家들은 우선 그들 作品을 西獨出版社에서 出版하므로써 명성을 날리기도 하였다. 또는 1965년에 死亡한 小說家이며 抒情詩人인 Johannes Bobrowski 나 Günter Kunter와 Reiner Kunze 처럼 그들 作品의 一部分을 西獨에서 出版하기도 했다.

그러나 東獨에서는 西獨文學作品의 許可版이 별로 없다. 있다면 그것은 「Max Von der Grün」이나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인 Heinrich Böll의 冊등 몇권뿐이다.

③ 專門書籍의 영역에서는 西獨과 東獨에 있어서 出版社들 사이에 여러가지 다른 形態의 協力이 이루어지고 있다. 書籍販賣關係는 貨幣改革이래로 販賣의 한 부분으로 제도화되었다.

④ 書籍의 交易은 다만 各種書籍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商業的인 新聞과 雜誌의 交換 그리고 넓은 意味로 印刷物의 교역도 여기에 包含되어 西獨은 東獨日刊誌의 자유로운 收入을 실시하고 있다.

⑤ 西獨 “푸랑크푸르트”에서 매년 10월에 열리는 「國際書籍博覽會」에는 40여개의 東獨의 出版社들이 정기적으로 參加하고 있다. 그리고 “라이프치히”年初 博覽會와 關聯하여 열리는 “라이프치히”書籍博覽會」에는 西獨의 많은 出版社들이 그들의 冊을 진열하고 있다.

⑥ 東西獨 公共圖書館사이의 圖書貸與에 관한 交流는 별 마찰이 없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東獨은 무엇보다도 東獨이 갖고 있지 않는 必要한 西方世界의 專門書籍을 먼곳에서 대여하여서 보는것 (Fernleihverkehr)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西獨은 東獨에서 地理學이나 古典등을 빌려오기 때문에 圖書의 量에 있어서는 대단하지는 않다.

⑦ 1971年3月10日, 西獨聯邦議會의 西獨人이 위헌적인 宣傳冊字와 資料를 蒐集 및 配布하는 경우의 處罰規定을 無制限 해제할 것을 萬場一致로 가결하였다.

⑧ 兩獨사이에 아직 變하지 않고 共通性을 갖고 있는 것은 獨逸語 맞춤법 改定에 있어서 獨逸語를 使用하는 나라들끼리의 共同

作業은 꼭 必要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西獨은 1973年 10月 23日 東獨의 내각에 獨逸語를 使用하는 東獨, 西獨, “오리지”, 그리고 “스위스” 4個國이 共同會議를 갖고자 제의하였다.

言語의 使用은 두 獨逸國家 사이에는 조금도 차이가 나지 않는다. 말의 文法的인 基本體制도 차이가 없다. 단어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약 3%미만의 차이가 난다. 서로 다른 단어의 대부분은 特別히 政治·思想的 領域, 職業活動에서 나온 概念들과 經濟, 教育 그리고 文化領域에 많다.

다. 言論人의 交流

言論人이라 함은 매일 또는 定期的으로 新聞이나 雜誌를 發行하는 新聞社나 雜誌社, “라디오”放送局, “텔레비존”放送局 또는 其他 言論機關을 위해 직책상 일상적으로 情報, 論評을 取材, 蒐集, 中繼하는 專門職業人을 일컫는다.

西獨은 이러한 言論人들의 交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實踐을 위하여 努力하였으나 東獨측이 그들 내부의 사정을 公開하기를 꺼려하고 또 東獨측에 自由主義물결이 浸透하여 올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별 效果를 거두지 못하였다.

東西獨 基本條約의 締結과 關聯하여 兩獨 言論人들의 活動條件을 規定한 形式의 書信交換이 西獨의 “바아르”와 東獨의 “코오울” 사이에 이루어졌다.

“바아르”는 “코오울”에게 보낸 書信에서 西獨은 그들의 法秩序의 範圍內에서 東獨의 言論人들과 그들의 보조원들이 西獨內에서 자유롭게 取材하며 보도하는 職業的인 活動을 할 權利를 保障하며 호혜평등의 原則에 입각하여 常駐特派員의 주재를 許容하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權利를 保障한다고 하였다.

- 東獨의 特派員도 外國의 特派員과 同一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權利

- 取材를 하기 爲하여 모든 交通手段의 利用의 편리와 항시 出入國할 수 있는 權利

- 獨逸에서 자유롭게 일하고 活動할 수 있는 權利

- 記事나 論評의 送稿를 爲하여 送稿手段을 利用할 權利

- 一般大衆과 言論機關이 入手할 수 있도록 마련한 公報資料들과 公報機關의 發表內容을 入手할 수 있는 權利

- 職務遂行에 必要한 物品 및 資料를 휴대할 수 있는 權利等이다.

이에 대해 상주特派員들은 우선 信任狀을 提出하여야 하고, 西獨에서 通用되는 居住方法으로 살아야 하고, 國家安保와 犯罪防止, 國民健康의 保護, 他人의 權利와 自由의 保護등을 爲하여 制定 公布된 제반법규의 준수이다.

基本條約의 締結後인 1973年 2月初 西獨과 東獨政府는 위의 問題로 갖은 接觸을 가져 西獨과 西“베르린”의 “라디오” TV放送局의 34名 편집자들이 東獨에서 活動하기 爲하여 상주特派員의 信任

狀을 爲한 申請書를 내었다. 그리고 1974年 1月 現在, 7個의 言論機關의 特派員들이 그들의 支社를 東“베르린”에 設置하였고, 9個의 申請은 東獨으로 부터 승락을 받은 狀態로 提出되어 있다. 이 밖에도 “라이프치히” 博覽會, 世界靑少年祝祭나 體育祝典에 東獨은 西獨特派員들의 活動 可能性을 承認하였다.

“라디오” TV領域에서도 지금까지 그 “프로그램” 구성에 때때로 서로 交流를 가졌었고 영화부문에서도 가끔 交流가 있었다.

西獨에서는 東獨과 동“베르린”의 新聞과 雜誌들을 制限없이 구독할 수 있는데 반하여, 西獨의 新聞과 雜誌들은 規則上 東獨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例外로 「特別許可」를 받은 特殊한 專門分野의 雜誌들은 東獨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이 分野의 交流를 위하여는 많은 改善點이 있어야 한다고 늘 措摘하고 있다.

라. “스포츠” 部門의 交流

東西獨間의 “스포츠” 交流는 1955年初 西獨의 「獨逸스포츠聯盟」과 東獨의 「獨逸體育聯盟」 사이의 接觸으로 오히려 다른 部門의 交流보다도 活潑하였다. 이 接觸으로 東西獨은 1956年 “멜버른” 올림픽大會에 단일팀으로 出戰하게 되었고, 1960年 “로마” 올림픽大會와 1964年 「東京」 올림픽大會에 全獨逸팀을 구성하여 「獨逸」(Germany) 이라는 國호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중 「환희, 아름다운 신들의 불꽃」을 國歌로, 흑주황의 3색에 오륜마크를 넣은 기

를 국기로 使用하기로 合意하였다.

그래서 東西獨의 “스포츠”交流는 東獨體育人이 대거 西獨으로 脫出하는 계기가 되어 東獨은 兩獨間의 “스포츠”交流를 制限하여 오다가 1961年 8月 “베르린”장벽 구축으로 64年 東京올림픽경기에 派遣할 全獨逸팀 構成을 위한 선발경기만 하기로 하고 두 나라사이의 “스포츠”交流行事는 끊겼다. 이에 대한 저항으로 西獨에 있는 「聯合旅行公社」는 東獨體育關係者들을 西方世界에서 開催되는 各種國際競技에 參加할 수 없도록 西方國家旅行을 禁止하였다.

그리고 또 論爭의 對象이 되었던 것은 서 “베르린”의 實際 대우에 關한 問題였다. “마드리드”에서 1965年 10月 30日에 열린 IOC는 西獨올림픽 委員會가 西 “베르린”의 “스포츠”를 管轄한다고 決定하고 東獨도 「東獨」(Ostdeutschland)이라는 호칭으로 參加할 것을 決定하여 1968年 “멕시코” 올림픽 이후 부터는 兩獨이 분리하여 出戰하게 되었다.

그 후 西獨과 東獨과의 “스포츠”交流는 다시 再開되었으나 아주 小規模적이었다가 1972年 올림픽競技가 西獨의 “뮌헨”에서 열리게 되면서 부터 西獨팀이 參加할 수 있도록 함께 同時에 1957年 이래 東獨國旗의 西獨內 계양이 불법이었던 것을 各洲政府와 合意하여 1969年 7月 22日자로 西獨內에서 열리는 各種 國際 “스포츠”行“事에 東獨팀이 參加할 수 있는 것은 물론 西獨內에서 東獨國旗의 계양과 國歌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獨逸스포츠聯盟」의 會長은 1970年 7月 2日 東獨의 「獨逸體

育聯盟」의 會長에게 兩獨間의 “스포츠” 交流를 보다 더 具體化시키자는 示한을 보냈으나, 東獨側은 同等權의 인정과 西獨의 단일대표권의 포기, 東獨의 權威 격하금지, 그리고 東獨 “스포츠” 聯盟 內部事項에 대한 각종 간섭의 포기를 主張하였다. 그 이후 “스포츠” 交流도 政治적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될 狀況으로 치닫고 있다.

마. 其他分野의 交流

이 밖에도 東西獨의 交流에는 法과 行政, 人道的이고 實際的인 問題들, 즉 保健分野, 公害 및 環境保護, 天災地變에 해당하는 사태가 發生하였을 때 서로 돕는 方法등을 강구하고 있고 또 部分的으로 實踐하고 있다.

保健關係 交流를 보면 兩獨間 基本條約의 精神에 따라 保健協定은 어느 分野보다도 순조롭고 빨리 結實을 맺게 되었다. 즉 첫 會談을 1973年 5月 23日 부터 시작하여 1974年 4月 25日에는 保健協定이 締結되었다. 이 協定文에서 兩獨은 유엔산하의 國際保健機構의 規定과 同機構의 原則에 一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協定文에서 重點을 두고 다룬 問題는 醫藥品의 송부를 비롯한 方法과 特殊病患者에 대한 교환치료문제, 유행병에 대한 事前情報交換, 그리고 旅行者의 病發生時에 治療問題와 治療費支拂問題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상과 같이 東西獨은 10년여의 長期間에 걸친 끈기있고 꾸준한 文化交流 努力의 結果로 이제 文化交流에서도 이질현상이 차츰 해

소되고 있다. 예컨대 '83年 여름 東獨故鄉을 방문한 “취봉”은 東獨文化의 變化樣相을 다음과 같이 傳하고 있다.¹⁵⁾

① 젊은이들 사이에는 “디스코”음악이 旋風的인 人氣을 얻고 있으며 “제임스·본드”가 出演하는 액션물이 上映되는 劇場은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 「단톤의 죽음」과 같은 “브레이트”作品들이 兩獨劇場에서 인기리에 上映되고 있다.

② 東獨作家들의 文化作品은 西獨의 書店街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③ 兩獨은 獨逸語辭典도 共通편찬하고 있다. 獨逸사람들의 母國語 자랑은 “프랑스”사람들에 못지 않다. 獨逸語 構造가 組織的이며 單語의 뜻도 分明하다고 자랑하는 獨逸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다. 그러나 分斷 이래 獨逸語에도 異質化現象이 나타나 政治分野나 經濟分野 등에서 使用하는 말들의 相當數가 한쪽에서는 이미 死語가 되어버렸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뜻을 理解하지 못하는 單語들이 수두룩하다. 이에 兩獨은 이런 細細한 分野에서 까지 서로 달라진 모습을 바로 잡아 가고 있다.

④ 年間 約 70篇의 西獨文化記錄映画가 東獨에 販賣되고 있으며 西獨 역시 劇映画등 130여편의 東獨文藝作品을 사들이고 있다.

⑤ 政治色彩를 띠지 않는 作品들의 東西獨間 交流에는 별다른 制約이 없다.

註 15) 韓國日報(1984.11.16字), 「特派員 現地르포」參照.

⑥ 東獨은 멀지 않은 將來에 西獨의 主要日刊誌를 東“베르린” 등에 販賣할 豫定이다.

⑦ 西“베르린”의 郵便局에는 年末이면 東獨으로 가는 소포와 편지들이 산더니처럼 쌓인다. 年間 2億通의 소포 및 편지가 兩獨國境을 오간다.

⑧ 1969年 34.回線에 不過했던 電話回線도 1,400回線을 벌써 超過했다. 遞信交流에서도 兩獨의 協力은 계속 擴大趨勢에 있다.

이와같이 최근 文化分野에서의 異質性도 차츰 解消되어 가고 있으므로 經濟交流에 比한다면 아직까지도 實質的인 쌍방적 文化交流에는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다만 각기 現實的 必要性에 따라 制限된 範圍內에서 部分的으로 文化交流가 實踐되는 初期的 단계라고 하겠다.

이러한 事例는 앞으로 展開되어야 할 南北韓文化交流實踐過程에서 적지 않은 問題性과 어려움을 암시해 준다.

6. 文化交流對象領域選定

가. 文化分野交流實踐可能分野의 提起

文化交流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文化分野交流實踐可能領域이 무엇인가부터 導出해야 할 것이다.

文化交流의 實踐可能 領域을 導出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南北韓 사이에서 提議된 바 있는 文化分野交流提議內容을 整理한 다음, 이를 根據로 해서 앞으로의 文化交流의 實踐可能領域을 再定立하는 作業이 順序일 것이다.

먼저 '70年代 南北對話過程을 통하여 非公式秘密訪問에서 이루어진 「서울會談」과 「平壤會談」, 2次에 걸친 「南北調節委員會」의 共同委員長會議, 3次의 南北調節委員會會議, 10次의 副委員長會議등에서 提出된 「政策基調 聲明書」(position paper)와 4次에 걸친 「金英柱」委員長의 談話文을 합쳐 21個 政策聲明書의 內容을 分析한 結果를 보면 다음과 같다. 여기서 부각된 基本政策變數는 19個였으며 이 19個 政策變數에 속하는 細部政策內容은 表7과 같이 나타났다.¹⁶⁾

註 16) 최정길 (1984), 앞의 글, pp.26-44.

<表7>

南北韓 交流提議의 內容分析

基本政策變數	細部測定變數	基本政策變數	細部測定變數
1. 對話名分	○統一目的外 4件		○單一藝術團斗 體育팀의 海外活動
2. 統一原則	○自主, 平和, 民族大團結		○一般事項
3. 不信要因	○ 6.25 事變 ○ 間諜斗송 ○ 中傷誹謗 ○ 理念與體制差異	7. 政治合作	○ 高麗聯邦制, 南北調節委員會 外 5件
4. 南北關係改善方案	○ 漸進的, 段階的 ○ 一括妥結 ○ 南北合作(交流)	8. 外交合作	○ 單一國號로 유엔加入 ○ 海外活動 共同步調
5. 經濟合作	○ 資源共同開發 ○ 南北韓 漁撈·開放運營 ○ 工業能力交流 ○ 南北韓 經濟分業	9. 軍事合作	○ 武力增強 中止 外 6件
6. 社會文化合作	○ 言語與歷史 共同研究 ○ 舞臺藝術 交換公演 ○ 映画共同製作與 “필름” 交換	10. 南北調節委員會構成與運營	○ 共同委員長會議與 調節委員會 外 13件
		11. 中傷·誹謗 對象	○ 最高當局者 外 6件
		12. 對話拒否 對象	○ 特定人斗 對話拒否外 5件
		13. 武裝衝突	○ 東西海事件 外 4件
		14. 對外關係	○ 韓美關係 外 11件

基本政策變數	細部測定變數	基本政策變數	細部測定變數
15. 韓國國內 事情	○ 非常戒嚴令 및 非常 事態外 8 件	18. 合意事項	○ 確認 ○ 違反抗議 및 指摘
16. 軍事關係	○ 武力增強外 7 件		○ 遵守要求
17. 北韓 內 部事情	○ 北韓體制 優越性外 4 件	19. 對話評價	○ 對話姿勢外 3 件

〈表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많은 變數 가운데 社會文化 合作에 해당하는 言語 歷史研究, 藝術 文化交流 등의 議題는 會談의 開催時와 成熟段階에서만 學論되었을 뿐, 會談 全過程에서는 政策的 考慮가 거의 되지않고 있음을 본다.

그러나 南北韓文化分野交流實踐을 可能하게 하는 政權當局者間의 合意는 1972年 南北共同聲明에서 成立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南北調節委員會 第1, 2, 3次 會談을 통하여 非政治分野交流를 위한 南北韓 主張內容을 보면 韓國側은 解決可能한 쉬운 問題부터 시작하여 漸進的으로 解決한다는 方針下에 1973年 6月 第3次 南北調節委員會 서울側 會談에서 서울側 委員長은 「서로가 서로의 社會를 서로에게 完全히 開放할 것」을 平壤側에 提議하면서 社會文化分科委員會와 經濟分科委員會를 構成하고 同分科委員會에서 廣範한 交流를 實施하자고 提案하였다.

여기서 提議된 具體的인 非政治分野 가운데 社會文化分野의 提議事項은 다음과 같다.

- ① 學術文化分野의 交流
- ② 體育分野의 交流와 國際競技 單一팀 構成
- ③ 映画·舞臺藝術의 交流
- ④ 考古學과 民族史의 共同研究 및 開發
- ⑤ 固有言語의 保存을 위한 研究
- ⑥ 記者交流와 常駐
- ⑦ 書信 電話 電報등 通信交流
- ⑧ 觀光分野의 交流

그리고 1971年 軍事停戰委員會 UN軍側 首席代表 “윌리엄·로저스”와 1972年 韓國의 外務部長官이 「非武裝地帶 共同利用」問題를 提案한 바 있다.

이에대해 北韓은 1954年 “제네바” 會談時부터 꾸준히, 또 機會있을 때마다 經濟 文化 通信 藝術 學術 言語등의 交流를 (煽動宣傳的인 次元이긴 하지만) 主張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韓國側이 막상 非政治分野의 具體的部門의 交流를 實施할 것을 提案하자 北韓은 그 態度를 돌변하여 政治 軍事問題의 優先的 解決을 主張하고 나섰던 것이다. 즉

- ① 軍縮實施
 - ② 政黨社會團體, 各界人士의 廣範한 交流 및 政治活動의 自由保障追求
 - ③ 南北調節委員會의 5個分科委員會 全面 同時構成등
- 이와같이 그들은 또다시 實現性 없는 宣傳的 主張을 거듭 되풀

이 하였다.

1973年 6.23 特別宣言 以後에도 「高麗聯邦制」 實施를 위한 「大民族會議」의 소집을 促求하는등 非現實的인 主張을 거듭 되풀이 하면서 南北間의 「平和協定」을 締結하면 「非武裝地帶의 平和的 利用」등 諸般問題가 한꺼번에 自然히 解決된다는 立場으로 맞섰다.

그 以後에도 社會·文化分野의 交流에 關係서 南北韓側은 機會있을 때마다 그 必要性을 力說하고 그 實行을 主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分野에서도 實質的인 實現에 이르지 못한 어려운 實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文化交流 實現을 위한 南北韓間의 「文化會談」의 提議와 이에따른 「文化交流協定締結」, 그리고 實際的인 文化交流의 實踐은 既往에 合意된 事項인 「7.4 南北共同聲明」에 바탕(法的根據)을 두는 것이 論理的으로, 또 現實的으로 妥當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그동안의 文化交流提議內容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文化交流對象分野를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다.¹⁷⁾

① 學術科學分野：

○ 自然科學(醫·藥學, 天文·氣象學, 海洋學, 農學, 生物學, 電氣工學등)

○ 人文科學(考古學, 國史學, 言語學, 宗教學)

註 17) 本研究에서는 體育交流와 文學藝術交流를 除外함.

- 社會科學(民俗學)
- ② 文學藝術分野
 - 純粹文學作品交流
 - 美術史研究 및 美術品展示交流
 - 舞臺藝術의 交換公演
 - 映画共同製作 및 “필름” 交換
 - 單一藝術團의 海外活動
- ③ 保健醫療技術分野
- ④ 民族遺産의 發掘 保存 및 相互交換 展示
 - 傳統的 民俗文化
 - 天然記念物
 - 民族文化祭의 相互交流 및 展示
- ⑤ 體育交流
- ⑥ 觀光 및 相互往來
- ⑦ 物質的 文化品目의 交流
 - 各級學校 教科書
 - 書籍
 - 新聞購讀
 - T·V 프로그램
 - 研究用 醫藥品
- ⑧ 通信交流

- 放送聽取
- 書信, 電話, 電報等

⑨ 人的 交流

- 言論人交流 및 常駐
- 科學者, 醫師, 學者, 宗教人 交流 및 相互訪問, 研究, 講義, 講演
- 技術者 交流 및 見學

나. 文化交流可能分野의 優先順位判斷

다음은 文化分野交流의 全體分野中에서 어떤部門을, 어떤順位로, 어떤方法으로 交流實踐을 誘導할 것이냐가 問題된다.

우선 그 優先順位를 決定하기 위한 基準의 設定이 중요하다. 優先順位決定要因이 되는 것은 基本的으로 相對的 性格을 띤다. 그러나 일단 이러한 相對性和 歷史性を 排除하는 條件에서 提起될 수 있는 基準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交流方法上的 基準으로서는 莫上 交流가 實踐에 옮겨질 경우, 理念과 體制差異로 인한 摩擦이 최소화될 수 있는 方法을 選擇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 ① 間接的 方法에서 直接的인 것으로
- ② 國外에서 國內로
- ③ 物件에서 사람으로

④ 非政治分野부터 政治分野로 誘導한다.

둘째, 內容上 基準으로서는 相互信賴霧圍氣 造成이 可能하고 緊張緩和 및 相互同質性 追求와 有關한 分野가 南北關係의 創造的 發展에 有益하게 될 것이다. 즉 相互主義原則을 前提로한:

① 名分性 (統一志向, 關係改善, 緊張緩和, 國際平和寄與, 人道主義, 民族的 興望 등)

② 最小政治性 (“ 이데올로기 ”가 排除될 수 있는가의 與否)

③ 實利性 (南側에게 유리한가, 北側에게 유리한가? 或은 雙方의 利害關心이 合致하는가?의 與否)

④ 緊張緩和 (信賴의 霧圍氣 造成에 寄與하는가의 與否)

⑤ 最小危險性 (體制的 衝擊效果가 적은 것인가? 雙方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가의 與否)

⑥ 異質性 克服 (同質性的 회복에 寄與하는가의 與否)

⑦ 單一民族意識 鼓吹등이 그 內容上의 基準으로 될 수 있다.

세째, 實踐可能性의 基準으로서 現實의 바탕에서 應할 準備狀態를 事前에 點檢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現實的 條件과 過去의 經驗的 事實을 基準으로 볼 때 期待되는 反應이 무엇일가를 豫測하는 作業도 實際로 交流를 實踐하고자 하는 立場이라면 반드시 前提되어야 할 優先順位決定基準이 된다. 勿論 다른 基準들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絶對的 基準이 되어서는 안된다. 모든 評價基準은 相對的인 중요성만을 認定받아야 할 것이다.

넷째, 일관성과 持續性的 問題이다. 즉 交流提議의 內容이 過去의 提議와 일관성이 있는 것이며 狀況의 變化에도 불구하고 持續性을 띠 수 있는 것이냐의 與否도 중요한 考慮要素가 된다.

다음에는 以上과 같은 選定된 基準에 대한 비중과 諸 基準間的 關係가 問題된다. 여기에는 各 基準에 대한 適合性, 妥當性등에 따라 일정한 配點을 總合하는 方法도 있을 수 있겠으나 이 問題는 交流現象自體가 主觀的이고 相對的 性格을 띠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一括的으로 各 基準의 비중이라던가 諸基準間的 關係樣相을 規定할 수는 없다. 단지 모든 基準을 充分히 考慮하여 綜合的으로 判定하는 方法이라면 큰 錯誤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綜合的 判定에는 政權當局者에 의한 政治的 決斷이 크게 作用하게 된다.

다. 文化交流 可能分野의 實踐優先順位 導出

위에서 提示된 判斷基準과 決定方法에 依據해서 文化分野交流의 實踐優先順位를 導出할 수 있다. 이를 適用시킨 예를들어 보면 <表 8>과 같다.

여기서 보면 學術, 醫療分野의 交流가 優先的으로 實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事實上 具體的 內容을 따지고 보면 學術分野의 경우에 있어서도 南北韓의 隔差와 갈등요소가 쉽게 解決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實情이다.

예컨대 北韓의 學術·文化가 唯物史觀에 입각하고 있으며 個人崇

<表 8 >

文化交流優先順位 導出의 例示

分野 評價基準	學術	醫療	遺産	觀光	용품	通信	인사
①名 分 性	+	+	+	+	+	+	+
②最小政治性	+	+	?	?	±	?	?
③實 利 性	+	+	+	+	?	+	+
④緊張緩和	±	?	±	±	±	±	?
⑤最小危險性	+	+	+	-	-	-	-
⑥異質性克服	+	?	±	+	?	+	+
⑦民族意識鼓吹	+	+	±	+	?	?	+
⑧準備狀態	?	±	±	±	±	±	±
⑨一 貫 性	+	+	+	+	?	?	?
⑩持 續 性	±	+	+	+	?	?	?
綜 合 意 見	우선	우선	의문	의문	의문	의문	部分的 可能

拜에 투철한 까닭에 人文·社會科學分野의 交流는 當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특히 그들의 主張이 비록 偏見化된 特殊的인 것이기는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신봉하는 소위 「理論」에 대한 執着과 論理展開가 집요하기 때문에 이 「理論」을 克服할 수 있는 反對代案을 뚜렷이 提示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일관된 主張을 壓倒하여 그것을 轉換시키는데는 상당한 時間과 客觀的 事實(實踐性)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人文·社會科學分野중 比較的 交流가 용이한 分野가 있다면 한글 研究分野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것도 최근에 와서 南北間의 맞춤법이 接近하는 傾向이 있긴 하지만 北韓側이 「평양말을 基準으로해서 民族語를 가다듬는다」는 主張을 견지하고 있는 한 이 分野 역시 간단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人文·社會科學分野의 交流가 가까운 時日內에 可能하다면 그것은 資料交換, 學術誌交換, 國際會議參席程度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人文·社會科學分野의 交流와는 달리 自然科學分野의 交流는 큰 障礙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氣象學을 위시한 몇몇 自然科學分野에서는 實際的 交流가 實現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戰爭武器開發과 聯關된 自然科學分野는 社會科學보다 더 어려운 交流對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文化交流分野에서 分野別優先順位를 決定하는 作業은 事實上 큰 意味가 없는 것이다. 그보다는 오히려 特定主題(예컨대 特定한 學術會議의 共同參與問題, 特定한 問題發生時 共同協力問題등)를 文化交流對象으로 選定하는 作業이 現實的으로 더 要求되는 作業이라 하겠다.

또한<表8>의 예시는 순전히 理念型的인 思考過程을 나타낸 것에 불과한 것이다. 現實的으로 問題되는 것은 이러한 形式論理的인 判斷이 아니라 現實的으로 雙方의 責任있는 當局者間의 政治的 合意에 의해서 最終的인 決心이 서야 한다는 事實이 가장 중요한 變數가 된다. 다시말하면 現實的인 交流實踐에 있어서는 文化交流의 分

野別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諸要素自體보다 각기 主觀的 立場에 서
있는 南北韓 雙方의 最高當局者들의 政治的 決斷이 決定的 役割을
한다는 점이다.

7. 文化交流의 分野別 推進方案

- 學術分野의 例 -

가. 學術交流의 目的 및 期待效果

交流現象에는 相互主觀性이 作用하기 때문에 그 目的을 設定하는데 있어서도 南北間의 意見이 一致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論議를 前提로 할 때, 學術交流는 學者와 研究資料의 交換 및 共同研究體制의 推進을 통해서 單一民族文化圈의 形成·發展을 기하며 北韓知識人의 自由化의 促進 등의 目的을 가진다. 그 具體的인 事例들을 다음과 같이 提示할 수 있다.

(1) 南北韓 單一文化圈의 形成을 위한 目的

- ① 異質化된 文化構造의 同質化와 自由化의 促求
- ② 南北韓 學者의 相互 親善交流 및 單一研究 또는 共同研究體制의 推進
- ③ 民族傳統의 傳承發展과 民族文化의 體系化

(2) 南北韓 學者의 開放化 促求를 위한 目的

- ① 學者의 어용성에서 解放
- ② “맑스·레닌”思想 및 金日成唯一思想의 偏狹性과 矛盾性에 대한 認識
- ③ 西歐思想 및 學問에 대한 客觀的 認識

(3)北韓에서의 새로운 知識階層의 形成을 위한 目的

- ① 北韓知識人の 自由化運動 誘導
- ② 北韓知識人の 自律性 대두

(4) 南北韓 緊張緩和의 手段으로서 平和統一 指向의 民族文化 創造에 目的을 둔다.

- ① 南北韓 緊張緩和의 精神的 手段
- ② “이데올로기”로 인한 感情的 對立의 緩和
- ③ 非政治分野 交流의 擴大는 政治協商에의 段階的 發展手段이 됨

나. 學術交流의 對象分野 및 主題設定

學術交流의 對象分野와 主要 主題를 設定하는 問題와 優先順位 決定問題에 있어서도 이는 어느 일방의 의지나 計劃으로서 妥結될 수 있는 性質이 아니다. 다만 앞으로 있을 學術交流를 위한 南北韓 接近試圖 - 交流意思 傳達 - 接觸 - 相互訪問 - 會談開催 - 交流合意 - 協約締結 - 機構設置 - 物的交流 - 人的交流 - 協力·發展등 諸般段階에 對備하여 이러한 段階的 交流過程에서 提起되어야 할 性格의 것이라던가 或은 提起될 可能性이 높은 分野와 分野別 主題를 論理的으로 유추해서 準備하는데 그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學術分野의 可能的 交流對象分野와 主題는 <表9>와 같이 設定될 수 있다.

<表 9 >

學術交流 可能分野의 設定

分 野	分 類	主 題 領 域
自然科學	①醫·藥 學	韓國特有 傳染病, 漢方醫學, 寄生蟲學, 나병, 結核, 放射線 醫學, 신약, 漢藥
	②天文氣象學	氣象情報交換, 理論天文學
	③海 洋 學	韓半島 近海 大陸棚 共同調查研究, 水產資源分布 共同調查
	④農 學	農藥 共同開發, 韓國土質 共同調查, 山林分布 調查
	⑤生 物 學	○非武裝地帶 動植物分布 共同調查研究 (緊張緩和問題 前提)
		○非武裝地帶 動植物生態 研究(緊張緩和問題 前提)
		○韓半島 高山 動植物 共同研究 ○큰河川 生物研究
⑥地球物理學		
⑦電氣工學		
人文科學	①考 古 學	○日本 “아스카” 고분 研究 ○韓國고분 共同調查研究 ○古代 東亞細亞文化交流研究 ○遺物研究(石類, 갑골류, 토류, 塑陶類, 金屬類)

分 野	分 類	主 題 領 域
	①國 史 ②言 語 學 ③宗 教 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遺蹟研究 (貝塚, 고분, 동굴) 등 ○ 성리학, 實學 研究 ○ 朝鮮社會經濟史 共同研究 ○ 韓國古代史 ○ 南北韓 방언, 古語共同調查研究 ○ 國文法 共同研究 ○ 南北韓 言語變遷 共同研究 ○ 韓國 佛教, 儒教, 基督教史 共同研究 ○ 天道教 共同研究 ○ 各種 宗教人 接觸 討議
社會科學	①韓國風俗, 民 族 學 ②其 他 分 野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衣食住 風俗研究 ○ 住居 風習 ○ 冠婚喪祭 ○ 在來風俗 (生産·性·遊藝風俗) ○ 禮儀凡節 ○ 年中行事 共同調查: 설날, 보름날, 寒食, 단오, 유두, 칠석, 추석 등
學術機構 南北共同 加入分野	①測地學 및 地球物理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仲介機構: 國際測地學 및 地球物理學 委員會 ○ 本 部: “ 토론토 ”

分 野	分 類	主 題 領 域
	②結核研究 ③自然科學 ④電氣工學	<ul style="list-style-type: none"> ○北韓加入：1967.7 ○韓國加入：1960.3.15 ○仲介機構：國際抗結核同盟 ○本 部：“파 리” ○北韓加入：1960.9.8 ○韓國加入：1954 ○仲介機構：國際科學聯盟理事會 ○本 部：“로 마” ○北韓加入：1959.4.1 ○仲介機構：韓國電氣工學委員會 ○本 部：“제네바” ○北韓加入：1963.10

다. 學術交流의 提議方法 및 實踐段階

學術交流가 實踐되기 위해서는 南北韓 雙方間에서 次元높은 政治的 水準의 合意를 大前提로 하지않을 수 없다. 南北韓當局者(最高責任者)間에서 「現實認定」을 바탕으로 한 南北交流協力에 대한 原則的이고 基本的인 合意가 成立되지 않고서는 文化分野에 局限된 學術交流의 實際的 進陟이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大前提條件을 일단 肯定的인 것으로 假定하고 學術交流의 段階的 推進方法을 생각해 보도록 한다.

첫째, 段階的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상당한 時間的 여유를 가지고 交流進展에 임해야 한다.

셋째, 주도할 實務者 및 責任者에 의한 秘密接觸, 秘密訪問 등의 非公開的인 接觸이 先行되어야 한다.

넷째, 주도할 共同委員會, 實務委員會등 公式的 機構(Agency)가 政府次元이든 民間次元에서든 構成되어야 한다.

다섯째, 公式機構에서 交流對象, 時期, 方法등에 대한 合意가 이루어지고 나아가 交流의 法的 根據가 될 수 있는 法規(協約, 또는 聲明書)가 實務者次元이든 長次官次元이든 高位當局者次元이든 간에 發表되어야 보다 實質的 交流의 바탕이 마련될 수 있다. 여기에서 國民的 支持가 뒷받침되어야 할것은 當然한 理致이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 前提條件들을 前提로 할 때 다음과 같은 段階的 節次가 要求된다. 즉 學術交流를 위한 接近試圖→相互 意思傳

達(間接接觸)→相互訪問·往來→文化會談提議 및 開催→交流合意·協約締結(長次官次元, 高位當局者次元, 民間次元等)→共同機構設立→物的交流→人的交流→高次的인 協力이라는 段階的 發展 過程이 必要하다. 여기서 各 先行 段階에서 提起될 問題를 事前에 檢討하는 것이 重要하다.

그리고 實際的인 交流進行段階를 미리 設定해두는 것도 重要하다. 예컨대 段階的 交流提議方法을 <表 10>과 같이 構想해 볼 수 있다.

<表 10> 學術交流提議方法

段 階	方 法	備 考
1 段 階 (接觸親善圖謀 段 階)	1. 雙方 共同關心事 範圍設定 2. 雙方 學者代表間 會談開催 (學術交流方案 決定)	相互 緊張緩和 進展時 可能
2 段 階 (共同研究)	1. 資料 交換·實物展示交流 2. 共同踏查 및 共同調查研究 3. 세미나, 심포지움開催(國內外) 4. 學術報告書 共同作成 및 討 議(綜合學術報告書 作成)	緊張緩和 制度化 時 可能
3 段 階 (共同研究·組 織構成段階)	1. 合同研究團體 構成 2. 共同研究所 設置運營 3. 共同學術關係 刊行物 發行 4. 巡廻學術講演會 開催 5. 雙方 交換教授制度 設置	1) 政治的 統合 準備段階可能 2) 緊張緩和 制 度化 成熟時 可能

라. 學術交流에 따른 利害得失 및 效果 豫測

交流에 따른 利害得失을 比較한다던가 그 效果를 測定하는 問題는 다음과 같은 理由로 해서 基本的 制約性과 不確實性을 면치 못한다.

① 이는 事後的 結果이기 때문에 未來事實에 대한 豫測의 限界性을 지닌다.

② 이는 主觀的 判斷의 여지가 많고 相對的인 評價 價値만이 認定된다. 이 때문에 나타난 結果的 現象 그 자체로서 評價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他 要素(環境變化)와 연관되어 그 意味가 부여된다. 그 뿐만아니라 狀況의 變化에 따라 測定基準 자체도 可變性을 띤다.

③ 이는 基準設定을 短期的 時刻이나 長期的이나, 直接的 效果를 따질 것인가 間接的 效果를 따질 것인가등에 따라서도 利害得失의 判定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以上과 같은 基本的 限界性을 감안하고 學術交流에 따른 利害得失 關係와 과급효과를 分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韓國側의 利害得失

① 學術研究機關, 研究者, 研究 雰圍氣 刷新으로 南北韓 研究發展을 促進한다.

② 金日成思想·北韓社會의 矛盾性과 現實 把握의 效果를 가져온다.

- ③ 北韓社會의 開放化를 促進·誘導한다.
- ④ 北韓住民生活條件向上에 間接的으로 寄與한다.
- ⑤ 北韓의 對內外 心理戰 및 思想教養強化의 口實을 提供하게 된다.

(2) 北韓側 利害得失

- ① 金日成思想과 北韓社會의 矛盾性이 暴露된다.
- ② 南朝鮮革命戰略이 崩壞된다.
- ③ 政治社會化效果와 宣傳煽動效果가 減退된다.
- ④ 知識人의 意識開放化와 自由化運動이 促進된다.
- ⑤ 北韓社會開放化와 唯一體制의 正當性 바탕을 瓦解시킨다.
- ⑥ 새로운 科學技術의 習得機會가 된다.

(3) 長期的 파급효과

① 爭點化 가능한 主題를 排除한다면 共同研究內容의 科學化를 增大하고 研究幅을 擴大할 수 있다.

② 共同研究過程, 資料交換, 實物展示交流, 研究業績發表交換, 共同研究發表會開催등 實際的 相互接觸을 통하여 相互親密感의 增大, 紐帶強化, 不信解消, 信賴回復등의 동반적 效果를 기피할 수 있다.

- ③ 나아가 南北韓 單一文化圈 形成發展에 기여한다. 즉
 - 文化構造의 異質化를 중식하면서 同質化에의 길을 促進하는 계기가 된다.
 - 南北韓 學者間의 相互親善이 增大되고 나아가 單一研究體制를 構築하는 土臺가 마련된다.

- 南北學者間 共同研究로 世界學界에 功獻한다.
- 民族文化를 傳承 發展시키고 南北韓에서 民族文化를 再構成·再創造한다.

④ 南北韓 學者의 意識의 開放化와 學問的 關心의 擴大를 促進하고 知識階層의 새로운 使命感을 부여한다. 즉

- 學者의 어용성을 불식하고 科學的 現實的인 思考를 增大시킨다.

- “맑스·레닌”思想 및 金日成 唯一思想의 矛盾性과 排他性을 認識한다.

- 西歐思想 및 學問에 대한 새로운 認識의 계기를 부여한다.

- 知識人의 開放化와 自由化運動을 誘導한다.

- 知識人의 自律性을 擴大한다.

⑤ 窮極的으로 緊張緩和 手段으로 活用함으로써 平和的 統一의 지름길이 된다. 즉

- 南北韓 緊張緩和의 精神的 手段이 된다.

- “이데올로기”의 感情的 對決을 止揚하고 民族的 融和를 誘導하는 手段이 된다.

- 非政治分野의 交流擴大는 政治協商의 段階的 發展手段이 된다. 즉 學術交流를 통한 關聯學者의 開放化→北韓體制開放化와 韓國 社會近代化로 相互同質性回復→相互交流·協力→統一接近이란 長期的 과

급효과를 기대하게 된다.

以上과 같은 效果分析을 綜合해 볼때 短期的으로는 北韓의 心理戰強化로 韓國側이 不利한면도 있지만 他分野交流에 비해서 單一文化圈形成에 보다 더 기여하게 될것이고 동시에 體制危險과는 無關한 分野이기 때문에 長期的으로 볼 때 學術交流進陟이 南北韓 雙方 모두에게 有益하며 나아가 緊張緩和와 統一接近의 基盤이 된다.

마. 學術交流發展에 對備한 對策

끝으로 앞으로의 學術交流發展에 對備하여 韓國側이 特別히 強化시켜야 할 事項과 研究分野를 다음과 같이 提起한다.

(1) 學術團體의 支援을 制度化하여 一貫性, 持續性있는 研究活動을 保障하는 對策이 要求된다.

- ① 支援強化 : 文敎部 支援事項
- ② 學術交流 具體案 準備 : 統一院, 安企部, 文敎部, 學術團體
- ③ 學術團體 代表者 訓練
 - 北韓現況, 共產主義 批判 및 統一敎育 : 統一院支援
 - 共產主義者와의 接觸要領 熟知 : 統一院, 安企部支援

(2) 南北 學術現況 比較評價分野의 研究를 大幅 強化하는 對策이 要求된다.

- ① 各種 學術團體現況 比較

② 國際學術大會 參加沿革 比較

③ 學術活動 및 實績比較

(3) 國際學術會議의 南北韓 同時參加를活性化하는 對策이 要求된다.

① 南北共同研究 및 單獨研究의 結果 發表

② 學者들간의 資料交換

(4) 交流豫想主題에 대한 深層研究의 事前的 支援強化

① 交流에 對備하여 交流準備作業의 本格化

② 交流研究者의 養成과 支援策 마련

③ 北韓研究의 深化와 科學化

8. 結論 및 建議

모든 社會現象은 歷史的 계기과정속에서 이룩되고 社會文化的 條件의 反映으로서의 意義를 가진다. 交流協力이란 現象도 이러한 脈絡에서 보아야 한다. 즉, 交流協力關係는 分斷된 民族이 반드시 거쳐야 할 歷史的 社會的 產物로서 意味를 지닌다. 이때문에 交流協力方案의 摸索도 ① 歷史的 經驗에 바탕해야 하며, ② 社會構造의 特殊性을 反映한 것이어야 하며, ③ 統一(이상) 實現에의 接近方向에서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觀點에서 本研究는 社會科學의 一般理論을 背景으로 삼고 南北交流戰略 構想에 있어서 南北韓이 各各 設定하고 있는 基本立場(大前提)이 무엇인가를 타진한 다음, 文化交流의 長短期的 戰略構想에서 提起되는 여러가지 問題點을 檢討하여 앞으로 展開될 南北韓 文化分野交流 가운데 그 하나의 例示로서 주로 學術分野交流와 關聯하여 보다 具體的인 交流協力方案을 提示하는데 主眼點을 두었다. 여기서 그 主要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가. 交流戰略構想의 大前提 設定

南北間 交流戰略의 大前提가 무엇인가에 대한 南北韓間의 分명한 立場이 우선 前提되어야 한다는데서 부터 本研究는 出發한다. 만약 宣傳的 心理戰의 目的이 아니고 實際的인 相互交流를 目的으

로 하고 있다면 여기에는 ① 南北韓이 다 같이 現實認定——實體的存在認定——體制 및 政權認定을 公式化해야 하며, ② 交流의 接觸關係 부터 成熟段階에 이르기 까지 相對方과의 相對的 입장에서 자신의 입장과 처지 못지않게 相對方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해야 하며, ③ 雙方의 심부를 刺戟하지 않는 部分的 接觸(對話)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며, ④ 異質的 體制間의 交流이기 때문에 兩體制의 政權當局者들의 決斷力에 의한 政治的 合意가 事前的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不可能한 일이다. ⑤ 뿐만 아니라 政權當局者는 자신의 決斷을 뒷받침 받을 수 있도록 國民的 一切感과 社會正義를 具現하는 課業이 要求될 것이다.

나. 文化交流의 阻害요소와 實踐可能條件

(1) 阻害요소 :

- ① 南北間의 統一接近方式의 差異
- ② 南北間의 政治理念과 體制的 差異
- ③ 言語의 異質化와 社會化的 差異
- ④ 北韓의 合作原理와 對話先行條件의 固守

(2) 文化交流實踐可能條件의 導出 :

- ① 南北間의 同質性回復·維持
- ② 南北韓 各社會의 社會的 統合程度의 增進과 國民的 一切感의 形成

③ 多面的 方向과 方法에 의한 接觸試圖의 積極化

④ 南北間의 인식거리의 縮小化作業으로 對南韓觀, 對北韓觀의 現實指向的, 統一指向的 變化 등이 要求된다.

여기서 南北韓의 交流協力을 根本的으로 저해하는 이러한 南北間의 差異와 異質的 要素, 그리고 敵對的 競爭關係를 짧은 期間內에 相互調節하여 相互接近할 수 있는 共通性和 同質的 要素를 形成하기란 期待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그런만큼 實踐的인 文化交流의 成立可能性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根本的인 저해요소를 감안하면서 現實狀況속에서 相互交流의 必要性을 增大하고 交流實踐에 따른 效率性의 原則을 信賴할 수 있는 可能的한 條件들을 導出하여야만 앞으로 文化交流를 實行할 수 있는 「文化會談」의 成立을 내다 볼 수 있게 된다.

以上과 같이 볼 때, 南北對話와 南北交流努力 가운데서도 社會文化分野의 交流는 赤十字會談, 經濟會談, 體育會談에 비해서 어려운 과제가 될 것이다. 文化交流는 社會開放化와 더불어 意識自由化, 脫“이데올로기”化, 文化的 普遍化를 가장 包括的으로 刺戟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극히 制限된 分野의 制約된 範圍에 局限된 部分的 交流만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現象은 分斷 以後 漸增的인 交流擴大를 끈질기게 持續해온 東西獨의 事例에서도 그대로 適用되고 있다.

歷史的으로 보면 文化交流는 그것이 實踐될 경우 그만큼 큰 과

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① 社會文化的 異質化를 中斷하고 異質的인 文化構造의 創造的 同質化를 통하여 南北韓 單一民族文化圈을 形成하는데 가장 積極的으로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② 北韓社會의 閉鎖性과 硬直性을 이완시켜 構造的 유연성과 開放化를 促求한다.

③ 나아가 支配的 知識階層의 根本的인 意識自由化를 促進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④ 結果的으로 政治會談을 包含한 여타 모든 分野의 交流協力을 擴大하고 나아가 南北韓 “이데올로기”의 感情的 對立을 止揚하여 敵對的 緊張關係를 緩和함으로써 統一文化創造에 積極的으로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 文化交流方案의 摸索

交流方案은 以上과 같은 交流沮害要素를 極小化하고 交流實踐可能要素를 極大化하는 方法에서 摸索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러한 면에서 볼 때 文化交流의 實踐的 方案은 무엇인가?

(1) 文化分野 交流可能分野

交流實踐可能分野는 基本的으로 南北間에 合意가 이루어졌던 「7.4 南北共同聲明」에 根據하여 導出하여야 한다. 여기서 導出된 文化交流分野는 크게 나누어 ① 學術科學分野(自然科學, 人文科學, 社

會科學), ② 文學藝術分野, ③ 保健醫療分野, ④ 民族遺産의 保存分野, ⑤ 體育交流, ⑥ 觀光 및 相互往來問題, ⑦ 物質的 文化品目交流關係, ⑧ 通信·放送分野, ⑨ 人士交流分野 등으로 要約된다.

(2) 文化交流의 優先順位

交流優先順位 決定에 있어서는 判定基準設定, 基準의 評價 등을 綜合的으로 判斷하여 決定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判斷基準은 상대적 主觀的인 性格을 띠 뿐만 아니라 狀況의 變化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優先順位 自體보다는 雙方的 提議에 서로가 對處할 수 있는 가능한 品目を 準備해 줘야 한다는데 더 큰 意義가 있다. 또한 分野別 優先順位를 決定하는 作業보다도 特定分野의 特定主題를 選定하여 交流對象化하는 것이 보다 現實的인 方法이다.

라. 文化交流의 分野別 推進方案

— 學術分野의 例 —

(1) 學術交流 目的

- ① 南北韓 單一文化圈 形成
- ② 北韓學者의 自由化와 社會開放化 促進
- ③ 南北韓 緊張緩和와 平和統一의 民族文化 創造

(2) 對象分野 및 主題選定

- ① 醫·藥學

- ② 考古學
- ③ 言語學
- ④ 共同研究機構 設置

(3) 學術交流 提議方法 및 實行段階

가) 段階的으로 時間的 餘裕를 가진 非公開的 秘密接觸期間의 先行: 接近試圖 → 相互意思交換 → 接觸成立 → 相互訪問 → 「文化會談」提議 및 開催 → 交流合意·協約締結 → 共同擔當機構 設置 → 物的交流 → 人的交流 → 高次的 協力이라는 段階的 發展過程에 의해서 成立된다. 또한 이러한 過程을 따라야 한다.

나) 學術交流의 進行段階 設定:

- ① 接觸·親善段階
- ② 共同研究段階
- ③ 共同研究 組織構成段階

이러한 각 交流段階마다 交流에 따른 利害得失을 비교하여 다음 段階로 진척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마. 建 議

- (1) 文化交流에 對備한 學術團體의 支援을 制度化하여 一貫性·持續性 있는 研究活動을 保障하는 對策

(2) 北韓研究의 活性化 및 科學化를 기할 수 있는 對策

- 南北韓 分野別 學術現況 比較評價
- 南北韓 學術團體의 學術活動 比較評價
- 北韓社會 變動推移 추적조사 強化

(3) 國際學術會議의 南北韓 同時參與를 制度化하는 對策

- 研究資料 相互交換
- 研究資料 提供便宜
- 研究業績 發表機會 增大

參 考 文 獻

1. 國土統一院 發刊資料

1970a. 自由化傾向이 金日成體制에 미치는 影響과 對備策 (한현건, 1970.9)

1970b. 社會間接資本部門의 南北韓比較評價 (안립, 1970.9)

1971. 非政治分野의 南北交流可能性과 國際的 中繼 및 保障方案 (김영국, 1971.7)

1972a. 北韓社會變動可能性과 그 誘導方案: “세미나” 結果報告 (1972.6)

1972b. 北韓社會變動可能性과 自由化方案 (1972.7)

1972c. 南北韓單一文化圈形成發展을 위한 政策的 研究 (함병춘, 1972.5)

✓ 1972d. 南北韓學術水準의 比較檢討 (최명관, 1972.12)

1972e. 南北學術交流基本方案 (案, 1972.7)

1972f. 南北韓體育交流方案 (案, 1972.10)

1972g. 南北交流에 對備한 北韓의 諸般 脆弱點의 導出 및 對備策 (이창우, 1972.12)

1973a. 南北韓觀光旅行實現 및 發展方案 (김영호, 1973.5)

1973b. 南北韓宗教人接觸對話方案 (정봉은, 1973.5)

1973c. 南北韓學術交流段階的 實施方案 (김정학, 1973.5)

1973d. 南北韓社會團體의 交流方案과 對備策 (李元高, 1973.5)

1973e. 南北韓科學技術者 交流方案 (조순탁, 1973.6)

- 1973f. 南北韓醫療技術協力方案 (양재모, 1973.6)
- 1973g. 韓國의 脆弱點과 北韓이 보는 韓國의 脆弱點 比較分析
(박재후, 1973.6)
- 1973h. 南北韓民俗藝術交流 및 對外協力方案 (김재훈, 1973.7)
- 1973i. 南北交流에 따른 北韓住民統制와 우리의 對應策 (이원설,
1973.7)
- 1973j. 政府의 段階的 統合接近原則에 대한 現實的, 論理的 妥當
성을 입증하고, 이 原則에 부합되도록 對北接觸戰略의 短
期 中期 長期를 具體的으로 定立 (김운태, 1973.8)
- 1973k. 南北韓言語共同研究方案 (1973.10)
- 1973l. 西獨의 東西獨協商對備戰略카드 (1973.1)
- 1974a. 北韓의 國際技術協力에 관한 研究 (황현봉, 1974.7)
- 1974b. 東西獨交流事例와 南北韓의 適用可能性 (염홍철, 1974.7)
1975. 東·西獨關係正常化過程研究 (1975.8)
1976. 南北對話, 交流協력을 위한 長期對策: “세미나” 結果報告書
(1976.10)
1977. 南北共同聲明發表 5 周年 學術 “세미나” 題發表 및 討議錄
(1977.7.1)
1978. 東西獨 各種交流와 關聯된 諸問題 및 解決實態 (정용길,
1978.12)
1981.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1981.12)
1983. 南北韓社會文化現況比較 (1983.11)

1984. 南北韓統一方案 및 主要議題比較 (1984.6)

2. 一般文獻

1972. 共產圈研究室編, 韓國統一과 體系再統合 (高麗大亞細亞問題研究所, 1972)

1982. 양호민外公편, 民族統一論의 展開 (형성사)

1983a. 김학준, 反外勢의 統一論理 (형성사)

1983b.北韓研究所編, 北韓總覽 (北韓研究所)

1984a. 李離和外編, 民族·統一·解放의 論理 (형성사)

1984b. 統一文化創造를 위한 研究 : 學術연찬主題論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南北韓 藝術分野 交流·協力 方案

研究責任者 洪 一 植
(高麗大民族文化研究所所長)

目 次

1. 問題 提起	91
2. 藝術分野의 交流範圍와 接近方向	93
3. 南北韓 藝術分野 比較	97
가. 總括的 比較	97
나. 分野別 比較	101
다. 交流의 可能性 및 分野別 類型	116
4. 交流·協力의 方案과 問題點	122
가. 南北韓 提議 事例 分析	122
나. 交流·協力의 方向과 長·短期 對策	125
다. 豫想되는 效果와 問題點	130
5. 綜合的 結論 및 對策	134

1. 問題 提 起

이 報告書를 통하여 우리는 南北韓 間의 緊張 緩和 및 關係 改善을 위한 方案의 하나로써 藝術 分野의 相互 交流·協力の 意義와 方向을 檢討하고, 藝術 分野別 比較를 통하여 交流의 우선순 위와 長·短期 對策 및 그 效果를 分析함으로써 發展的 相互 接近의 可能性을 摸索하고자 한다¹⁾

거의 40 年에 달하는 期間 동안 南北韓이 관여한 社會政治的 理念과 體制를 維持하여 오는 過程에서 形成된 異質化 現象을 극복 한다는 것은 물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間隙이 깊으면 깊을 수록 이를 넘어설 수 있는 具體的 方案을 摸索하는 일은 더욱 더 切實한 課題가 되고 있다. 우리는 南北韓 間의 계단 차이를 조금 의 虛像도 없이 직시하면서 可能한 한 政治的 對立性이 적은 部門에서부터 相互 接近을 摸索하여야 한다. 交流라든가 協力이라는 것은 國際的 情勢 등의 周邊 要因 外에도 關聯 當事者 쌍방의 眞정성이 전제되어야 可能할 터이나, 이를 위한 우리의 積極的 努力은 民族史의 未來를 위하여 所重한 意義를 가진다 할 것이다.

註 1) 以下の 論述에서 本稿는 現在 大韓民國 政府의 行政力이 미치고 있는 地域을 「南韓」으로, 北傀 共產勢力 장악하에 있는 地域을 「北韓」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따라서 「南韓의 藝術」, 「南韓의 경우……」 등과 같은 表現은 어디까지나 大韓民國의 유일한 政治的 正統性을 전제한 위에서의 地理的 구분에 따른 것임을 밝혀 둔다.

이러한 각도에서 볼 때 藝術分野는 南北 交流의 여러分野가운데서도 優先적으로 檢討될 만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藝術行爲는 모든 人類에게 普遍的인 것이면서, 理性和 論理보다는 感性和 體驗에 깊이 關聯된 活動이라는 點에서 그 效果가 깊고도 광범하기 때문이다. 다만 北韓의 藝術이 長期間에 걸친 金日成主義化로 말미암아 획일적으로 경직된 結果 이 部門에서도 손쉬운 接近의 可能性을 樂觀할 수는 없으나 最近 南北 關係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活潑한 接觸에 비추어 그 方向과 長·短期的 對策을 摸索하는 것은 매우 重要한 課題임이 分明하다.

이 問題에 接近함에 있어서 본고는 藝術分野의 交流 協力에 關聯하여 直接的으로 야기되는 제한 問題와 그에 대한 對應 方案을 論하는 데 關心을 集中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여 藝術分野의 交流 協力에 作用하는 周邊的 要因 및 그때 그때의 狀況的 變數는 일단 除外하고 問題의 中心 部分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한정에 따라 본고의 成果는 그 自體가 곧 즉각적인 實行 方案으로 轉換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限界를 안게 될 것이나, 流動的인 狀況 要因에 制約된 나머지 藝術分野 交流의 本質的 問題들을 精密하게 檢討하지 못하는 難點을 克服하는 데에는 좀더 큰 效果를 거둘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2. 藝術分野의 交流範圍와 接近 方向

南北 交流 協力の 對象이 되는 藝術分野를 檢討하는 데 있어서 본고는 藝術이라는 概念의 外延을 可能한 한 擴張하여 通常的인 意味의 藝術은 물론 藝術의 屬性을 部分的으로 지닌 事物과 行爲까지를 고려의 對象으로 包含하고자한다. 즉, 본고에서 말하는 藝術에는 文學, 音樂, 美術, 舞踊, 演劇, 映畫 등의 一般的 樣式은 물론 民俗藝術, 傳承놀이등 藝術性を 띤 傳統文化 部門까지가 포괄된다.

이와같은 포괄이 불가피하고도 긴요한 事項이 되는 것은 藝術一般에 關한 원론의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南北韓 사이의 異質化가 지닌 歷史的 特殊性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北韓의 文化는 南北分斷 이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唯物論的 社會主義의 理念 도식 속에서 끊임없이 變貌하여 왔으며, 特히 60年代 以後에는 이른바 「金日成 主體思想」의 명제에 지배되면서 어떤 共產國家에서도 보기 어려운 教條主義的 體系를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南韓의 開放的 文化는 傳統的 바탕을 維持하면서도 自由主義的 雰圍氣와 西歐文化 體驗 및 大衆文化의 發達에 따라 1945年 당시의 양상과는 크게 다른 方向으로 擴大·變貌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의 시점에서 양측의 文化·藝術이 아무런 매개 계기나 기반이 없이 만나게 될 때 그 結果는 一般的인 豫想보다 衝擊的인 것일 수 밖에 없으며, 南北 交流를 통한 相互的 理解·接近의 기대도 서두에서부터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現段階에

서 優先的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은 오늘날의 社會狀況 속에서 形成된 現代的 文化·藝術보다는 分斷과 兩極化가 進行되기 以前의 모습 및 性格을 可能的 한 많이 지니고 있는 基層的 部門에서부터 基本的인 接近의 可能性이 摸索되어야 한다는 點이다.

물론 基層的 文化·藝術에 속하는 部分도 歷史的 時間의 經過에 따라 전혀 變貌를 입지 않을 수는 없다. 특히 社會主義的 目的性에 따른 統制가 生活의 모든 部門을 支配하는 北韓의 境遇 傳統 藝術에 對한 變形 및 歪曲의 現象은 深刻한 程度에까지 이른 것으로 觀測된다. 그러나, 그러한 추세 속에서나마 完全히 소멸되지 않고 잔존하는 基底的 部分 및 要素가 바로 相互 接近의 최소적 단서일 수 있다는 點에 優先的으로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立場에서 본고는 南北한 藝術 分野 交流의 諸問題를 폭넓게 檢討하되, 問題에 接近하는 基本 方向도 文化·藝術的 基層으로부터 여타의 部門으로 關心을 擴散하여 나아가는 方案의 摸索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南北間의 對話와 接觸을 政治的 宣傳의 契機로 삼는 데에 익숙한 北韓側의 속셈이 이 問題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는 별도로 考慮해야 할 事項이거니와, 일단 交流·接觸의 擴大를 통한 緊張緩和를 眞正으로 希望하는 立場에서 볼 때 問題를 풀어 가는 經路는 다음과 같은 進行 順序를 豫想하는 것이 正常的인 展望인 것으로 判斷된다.

① 同質的·傳統的 要素가 많은 것에서부터 異質的·當代的인 要素가 優勢한 것으로

② 靜態的·事物的인 것에서 動的·行爲的·言語的인 것으로

③ 人間 經驗의 普編的·感性的 部門에 關聯된 것에서부터 歷史的·現實的인 것으로

아울러, 여기에 藝術分野에 있어서의 “交流”·“協力”의 概念을 미리 規定하여 둘 必要가 있다.

優先 交流의 意味를 논한다면, 藝術은 一般的으로 藝術行爲者, 藝術 作品, 수용자의 세 층위로 이루어지는 바, 藝術 交流란 이 세 가지 중의 一部를 一方이 다른 一方에게 보내거나 받아들임으로써 接觸하게 하는 일이라 規定할 수 있다. 다만 舞踊·演劇 등과 같이 藝術行爲者와 藝術 作品이 分離될 수 없는 境遇 作品의 交流가 곧 인적인 交流를 包含하게 되는 點은 注意를 要한다. 이들 交流의 具體的 形態를 열거하면 매우 複雜할 터이나 基本 類型은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인적 要素를 同伴하지 않은 藝術作品 및 기록 매체의 交流, 즉, 文學作品, 美術品, 工藝品, 音曲, 映畫 필름 등의 交流

② 인적 要素를 同伴한 藝術作品의 交流, 즉, 音樂의 實演, 舞踊, 演劇, 民俗藝術·놀이 등의 交流

③ 觀람·감상자의 交流

④ 藝術家 및 藝術 關係者의 相互 訪問이나 만남

藝術 分野에 있어서의 協力이란 이보다 훨씬 더 非定型的이어서, 명료하게 規定하기 어려우나, 「一方이 다른 一方의 創作·製作·傳達 行爲에 技術的·物的·素材的 도와 편의를 提供하거나, 共同的

인 노력에 의하여 그러한 成果를 추구하는 일」이라 定義할 수 있다. 그 가운데서 比較的 實現性이 높은 것을 든다면 文化財·美術品の 共同 海外 전시라든가, 傳統 藝術의 合同 海外公演 같은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素材的·物的 편의의 提供은 이보다 複雜한 問題를 同伴하기 마련이고, 文學·演劇·映畫 등의 共同製作이란 交流와 協力을 통한 相互 接近의 成果가 確固하게 다져진 다음이 아닌 한 一方의 宣傳的 提議를 넘기 어렵다.

3. 南北韓 藝術分野 比較

가. 總括的 比較

南北韓 藝術分野의 交流·協力 方案을 檢討하기 위한 基礎 作業으로서 그 現況과 特性을 먼저 概括的으로 檢討하고자 한다.

먼저 南韓의 境遇를 보면 政府가 立案하여 施行하는 文藝 政策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作用力은 大部分의 境遇 間接的이고 도 완만한 데 비하여, 개개의 藝術家 및 小集團과 民間 團體의 多様な 藝術觀과 價値意識이 藝術 文化 전반의 중추적 동력으로 기능하였다는 사실을 特徵으로 指摘할 수 있다. 이와같은 現象은 사실상 우리만의 特徵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적어도 近代以後의 開放社會에 있어서 자연스럽고도 불가피한 동향일 것이지만, 北韓의 藝術이 밝아 온 자취와 比較할 때 根本的으로 다른 特性임을 주목하여 마땅하다. 國家가 藝術行爲와 그 傳播·受容의 環境을 保護하고 育成할 包括的 責任을 지되, 具體的 文藝 現象에 대하여는 一聯의 社會規範的·法制的인 裝置로서 反社會的 作用을 制限할 뿐 어떤 當爲的 目標의 遵守를 획일화하여 強要하지 않는 이 一般原則에 따라 多様な 藝術 現象이 출현하게 되는 것은 지극히 自然스러운 일이다. 그런 뜻에서 1945年이래 南韓에서 展開된 藝術分野의 흐름은 매우 다채로운 無定型的 多様性的 擴大 過程이라 把握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多樣性 속에 一聯의 群集的 現象의 系列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전위적인 西歐 現代藝術에 積極的 關心을 가지고 이를 受容하는 傾向, 傳統藝術을 保存·새련하면서 民族的 藝術價値의 심화를 追求하는 傾向, 20世紀 初期 이래 蓄積되어 온 近代藝術의 자기화를 바탕으로 보다 온건한 漸進的 變貌를 피하는 조류, 藝術의 高답적 純粹主義를 拒否하고 現實 社會에의 實踐的 關與를 重視하는 立場 등이 藝術分野와 時期에 따라 比重을 달리 하면서, 때로는 競爭的 關係에서 때로는 상보적·병행적 關係에서 여러가지 변이형을 형성하면서 이어져 왔고 또 존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 藝術의 現實이다. 또한 藝術行爲를 傳達하거나 매개하는 각종 매체와 社會機構들이 그들 自身の 事業的 必要 및 大衆의 취향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藝術的 表現을 追求해야 한다는 點도 商業性을 띤 大衆文化·藝術의 發達과 더불어 特徵的인 現象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당의 政策이 모든 藝術行爲의 方向과 性格을 規定짓는 北韓에 비하여 우리 社會의 藝術은 민간의 다기한 藝術意識과 수용자 大衆의 欲求 및 物質的 보상체계의 구조 위에서 질적으로 多樣하고 量的으로 豊富한 藝術品들을 産出해 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하여 北韓의 藝術은 「人民과 黨을 위해 복무」하며 「金日成 主體思想」의 指導 아래 社會主義的 革命理念에 적합한 인간상을 주조하고 교양해야한다는 절대화된 要求에 철저히 구속되어 있음을 지배적인 特性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물론 이와같은 原則論

의 成立과 그 나름의 內的 發展에는 時期에 따른 段階가 있어서 1945年 9月 以後 6.25에 이르는 形成期, 6.25 以後 1960年代 初까지의 確立期, 1960年代初 以後 近年에 이르기까지의 심화기로 區分하여 볼 수 있다.²⁾ 이 가운데서 形成期에는 蘇聯의 影響 아래 唯物論的 社會主義 文化構造의 扶植이 進行되면서도 傳統文化·藝術과 解放 以前의 一部 藝術 要素가 잔존하였으나, 確立期에 들자 政治·社會的 大肅清 및 再體制化와 함께 文化·藝術面에서도 共產主義的 「價值階序」의 完강한 통제 構造가 確立되었다. 그리고 이 때에 이미 강고한 基盤을 構築한 金日成主義는 深化기에 와서 조금의 개인적 잉여나 解釋·實踐上의 派生型을 허용하지 않는 유일신적 規範으로 尙양되기에 이르렀다. 北韓 社會에서는 金日成의 發言을 금과옥조로 받드는 「黨 中央」의 文藝 理論 및 政策 以外에 아무런 개인적 藝術觀도 趣味도 存在하지 않으며, 또한 藝術에 관한 理論과 實踐의 모든 問題는 社會主義 建設 및 革命의 達成이라는 統合的 目標안에 受容된다. 그들의 藝術論에서 主要한 實踐理論으로 強調되는 「主體藝術論」, 「種子論」, 「속도전 理論」, 「군중 藝術論」, 「集團主義論」, 「革命的 樂觀主義」, 「革命的 大作主義」등이, 모두 이러한 現象의 一部이다.³⁾

註 2) 함병춘, 「南北韓 單一文化圈 形成 發展에 관한 研究(상)」, pp.62 ~ 63 參照.

註 3) 洪起三, 「北韓의 文藝政策과 文藝理論 研究」, 北韓의 文化藝術(國土統一院, 1981), pp.29 ~ 122 參照.

이처럼 획일화된 全體主義的 藝術狀況안에서 藝術家들은 獨立된 創造의 主體로서의 개인이 아니라 黨의 政策이 要求하는 바, 기준에 따라 藝術品을 生産하는 職人이 되었다. 그들은 國家가 정한 바 몇 가지 制度化된 經路에 따라 新人으로 발굴되어 文藝總 新人指導部에 登錄, 一定 期間의 訓練期間을 거친 뒤 各 藝術分野別 同盟의 候補盟員이 되고, 다시 所定の 期間과 人員 需給에 따라 正盟員이 된다. 北韓의 作家同盟員의 경우를 예로 하여 그들의 創作生活을 보면, 所屬 作家同盟의 創作室에서 日常 勤務를 하며, 勤勞時間은 一般 勞動者에 준하여 日課 終了後에는 2時間의 思想學習과 「1日事業總和討論」을 해야 한다. 作家 個個人에게는 上部로부터 創作 課業이 하달되어 個人別로 年·分期·月別計劃書를 作成한 뒤 이를 所屬 同盟에 提出하여 黨의 認准을 받고서야 비로소 創作 活動에 들어가는 등 철저한 計劃生産的 構造가 支配한다. 또한 完成된 作品이 發表되기까지는 「支部作家同盟 提出→支部別 合評會→中央作家同盟 提出→中央作家同盟 合評會→中央黨 文化藝術部の 最終審査→發表」의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

따라서, 北韓의 藝術에서 大衆의 日常的 관심과 興味에 호소하는 大衆藝術과 商業主義的 藝術이 存在할 수 없음은 勿論, 開放社會에 있어서 藝術家가 자신의 藝術行爲에 대한 外的 評價의 참조틀로 삼는 다양한 專門 批評家 및 趣味 集團 또한 存立할 根據를 가지

註 4) 上掲書, pp.19 ~ 20 參照.

지 못한다. 이 점을 여기에서 強調하는 것은 그 事實 自体가 새로운 發見이어서가 아니라, 南北 藝術 交流에 있어서 저들은 단일한 藝術 理論 및 政策 아래 엄격한 生産構造에 의해 製作되는 藝術만을 가지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대단히 多彩로운 個別 藝術家·유과·集團이 多重的인 藝術 參酌 및 流通의 構造 속에서 形成하는 藝術을 保有한다는 事實의 考慮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勿論 이러한 對照的 關係에서 藝術과 人間의 眞正한 모습을 찾을 수 있는 領域이 어디인가는 말할 必要조차 없이 자명하다. 또한 交流·協力の 長期的 展望에서 볼 때 저들의 閉鎖的 藝術이 開放社會 藝術의 多樣성과 깊이를 견디어 낼 可能性은 전혀 없다. 그러나, 交流의 初期段階에서는 對象 領域과 接近 方式이 신중하게 고려되지 않을 경우 南韓 藝術이 지닌 無定型的 多樣성이 短期的으로는 반드시 有利하지만은 않은 局面에 놓이는 예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나. 分野別 比較

이 項에서 다루게 될 南北韓 藝術 分野別 比較는 個別 “장르”에 대한 상세한 對比다. 交流·協力에 있어서 留意되어야 할 差異에 主眼點을 두고, 交流 優先順位 및 長·短期 對策의 根據를 確認하는데에 置重하기로 한다. 또한, 우리側의 藝術 分野에 관하여는 本稿 以外の 資料를 통해 具體的인 現況을 쉽게 確認할 수 있는

만큼 簡略하게 言及하고, 北韓側의 實情에 좀더 比重을 두어 다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저들의 對南 藝術 認識이 將次的 態度에 중요한 因素로 作用하리라는 점에 관하여도 留意하고자 한다.

文學: 南韓의 경우 文學은 國家 安保나 社會 安寧秩序를 저해하는 刊行物 以外에는 出版·流通上的 制約을 加하지 않는 開放的 施策 속에서 質的·量的으로 急速度의 發達을 持續하여 왔다. 月刊·季刊으로 刊行되는 文藝誌는 勿論 各種 新聞·綜合誌·教養誌 등 定期刊行物들이 많은 양의 文學 作品을 收錄하고 있고, 수많은 大小 出版社에서 刊行하는 單行本 作品集 또한 엄청난 양에 달한다. 특히 70年代 以後 近年에 이르기까지 우리 出版界의 成長에 따른 文學 出版의 增加는 놀랄만한 것이다. 1983年의 9月의 文公部 集計에 의하면 南韓 各地에 있는 出版社 總數는 2,301個社이며, 印刷所가 2,085個社로 登錄되어 있다.⁵⁾

1983年에 發刊된 總圖書數는 33,321種에 1億 441萬 1,111部이며 이 가운데서 文學 部門의 刊行物은 무려 7,282種인 바, 이는 北韓側의 實相과 比較할 수도 없는 量的 規模라 할 것이다.⁶⁾

이에 비하여 北韓側의 文學은 量的으로 比較가 되지 않으리만큼 적으면서도 앞에 指摘한 바와 같이 철저하게 社會主義的 革命理念

註 5) 韓國文化藝術振興院 編, 文藝年鑑: 1983, (大光文化社, 1984), p. 627.

註 6) 聯合年鑑: 1984 (聯合通信, 1984), p. 256.

과 共産黨 指導路線에 입각하여 創作·出刊되고 있으며, 그 結果는 南韓처럼 讀者들의 任意的 選擇과 趣向에 따라 소화되는 것이 아니라 各級 學校 및 思想·教養 教育의 機會를 통하여 強制性을 띠고 널리 보급된다는 特性을 보인다. 最近의 한 資料에 의하면 그들은 「1982年에도 우리 文學은 榮光스러운 黨中央의 영도 밑에 철두철미 時代의 要求와 人民의 지향에 맞는 높은 경지의 文學으로 찬란히 개화 발전하는 길에서 커다란 前進을 이룩하였다」⁷⁾고 自評하고 있는 바, 이것은 그들의 文學이 지닌 철저한 政治性에 대한 集約的 表明이라 하겠다.

모든 藝術 分野 중에서도 言語라는 意味체를 매개로 使用하는 文學에서는 이와 같은 理念的·文化的 差異가 극명하게 露出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文學上의 交流는 作品集의 交換만으로도 可能하다는 便宜性이 있는 반면에 그 內實에 있어서의 對立的 相互 갈등은 演劇·映畫 등의 公演藝術과 더불어 가장 심할 것으로 추정된다.

美術: 美術 分野에 있어서는 南韓의 美術 “장르”가 一般的으로 韓國 國畫·書洋畫·판화·조각·서예·사진·건축·공예·“디자인”등으로 나누고, 여기에 前衛美術·抽象美術 등의 實驗的 조류가 여러가지 신선한 刺戟을 導入하는데 비하여, 北韓의 경우에는 이들 양식 一部の 再編成과 變形이 가해지면서 주제상으로 「朝鮮 革命의 利益에

註 7) 朝鮮中央年鑑: (平壤: 朝鮮中央通信社, 1983), p. 339.

服務」한다는 劃一性을 띠는 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서예·공예·“디자인”은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舊時代의 封建文化가 남긴 遺物이거나 유산계급의 사치 慾求와 直結된다는 점에서 獨立的인 美術分野로서의 地位를 상실한 것으로 推定된다. 그들의 사진은 藝術寫眞으로서의 다양한 技法과 表現的 깊이를 추구하는 대신 報道·宣傳用 道具의 次元에 머물러 있는 듯, 北韓의 文化·藝術 概況을 다루는 冊子에서 제대로 取扱된 예를 發見하지 못하였다. 그대신 그들은 版畫를 매우 중시하여, 「革命思想을 武裝시키고 社會主義的 愛國主義 精神으로 教養하는 힘있는 武器로 服務한 形式」이라 하고, 「版畫는 抗日革命 鬪爭時期에 이룩된 革命的 版畫의 傳統을 이어받아 金日成 同志의 教示와 그 具現인 黨의 路線과 政策을 基동적으로 신속하게 反映하면서 눈부신 發展을 이룩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다.⁸⁾ 그러나, 技法的 側面에서 볼 때 그들이 利用하는 版畫는 木版畫, 銅版畫, 石版畫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크 스크린” 등 現代의 版法은 發展을 보지 못하고 있다.⁹⁾

이와 아울러 注目해야 할 北韓 美術의 特徵은 '朝鮮畫'의 強調과 '集体作'의 方法이다. 「民族的 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 담는다는 그들의 寬容的 論法이 繪畫 部門에 適用되어 나타난 朝鮮畫는 우리의 傳統的 東洋畫(韓國畫)를 많이 수용하되 墨畫를 거

註 8) 尹明老, 「北韓 美術의 技法과 樣式」, 北韓의 文化藝術, p.405.

註 9) 上階書, p.415.

부하고 彩色畵의 方法을 유일화한 바탕 위에서 「社會主義 勝利의 時代인 만큼 우리가 要求하는 美術도 勝利者의 긍지 드높이 자랑에 찬 美術, 革命的이며 樂天的이며 多彩 華麗한 美術이어야 한다」는 것이다.¹⁰⁾ 이러한 態度는 文學에 있어서의 革命的 樂觀主義의 要求와 마찬가지로 藝術의 심오함과 眞實性보다는 現實의 각박한 體驗을 美化한 환상의 주입을 지향하는 것임이 分明하며, 純粹한 美術論의 次元에서 보더라도 韓國畵의 豊富한 傳統을 편협하게 縮小하고 歪曲한 結果임을 부정하기 어렵다.¹¹⁾ 集体作이란 多數의 美術家가 黨이나 美術家同盟에서 割當한 課題를 共同作業으로 製作하는 것으로서, 北韓 藝術이 지향하는 沒個性의 極端的 形態이다. 이와 같은 諸般 特徵과 方法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는 1982年의 美術에 대한 다음의 서술에서 端的으로 드러난다.

「영광스러운 黨 中央의 精力的인 指導 밑에 1982年에 美術部門에서 이룩된 중요한 成果는 偉대한 수령 金日成 동지의 탄생 70週 國家美術展覽會를 契機로 思想藝術的으로 優秀한 美術作品들을 數없이 創作하였으며, 美術家들이 生産 現場에 直接 들어가 '80年代速度' 創造에로 勤勞者들을 힘있게 고무하는 革命的인 美術作品들을 많이 내놓은 것이다.

註 10) 吳光洙, 「韓國 美術의 傳統樣式과 北韓美術」, 北韓의 文化藝術, p. 438.

註 11) 이에 관한 자세한 論議는 上掲書, 「韓國 美術의 傳統樣式과 北韓美術」參照.

…작품들 중에서는 革命과 建設의 위대한 英才이신 수령 金日成 동지의 不滅의 革命思想과 領導 藝術, 고매한 共產主義的 德性を 폭넓고 깊이 있게 형상한 화폭들이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였다」¹²⁾.

音樂：北韓의 音樂은 南韓의 그것에 비하여 構成 部門이 매우 단순한 것으로 보인다. 兒童音樂을 일단 除外하고 볼 때 南韓 音樂은 國樂, 西洋 古典音樂 및 近代音樂에 影響받은 器樂, 1920年代 以來의 歌曲, 大衆音樂 및 歌謠, 外國으로부터 들어왔거나 그것에 많은 影響을 입은 “팝송”·“포크송”, 最新 現代音樂 등으로 나누며 이들 사이에 複雜한 相互 影響 및 混合·變異型을 찾아 볼 수 있다. 다른 部門에도 그런 現象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音樂 現實은 가히 갖가지 根源과 性格을 지닌 音樂文化의 多重的 共存 狀態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北韓의 音樂은 이에 비하여 閉鎖的 共產主義 社會의 特性으로 말미암아 西洋 古典 및 近代音樂, 大衆音樂·歌謠, 外來的 “팝·포크” 系列의 音樂, 現代 前衛 音樂에 對應하는 部分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觀測된다. 또한 國樂 部門에서도 아악 系統에 드는 것은 이를 保存·전수할만한 音樂人이 없었던 데다가 封建時代의 支配階級이 享有하던 것이라 하여 否定的으로 評價한 結果, 그 命脈을 찾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은 北韓音樂의 構成部門은 部分的으로 繼承·變形된 國樂,

註 12) 朝鮮中央年鑑：1983, p.359.

관현악, 그리고 歌唱音樂이 된다.

「民族的 形式」을 強調하는 北韓의 藝術論에 비추어 國樂이 어느 정도의 內實을 갖추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나, 事實은 그렇지 않다. 北韓의 國樂人은 수적으로 적은 데다가 音樂理論의 바탕을 가진 자가 없는 듯, 理論 體系도 다분히 洋樂的인 解釋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傳統的 樂器는 大部分이 異質的인 것으로 改造되었다.¹³⁾ 또한 그들은 雅樂의 유산을 廢棄하고, 종래의 發聲法 중 많은 部分을 時代에 適合하지 않다하여 부정함으로써 國樂의 豊富한 表現力과 깊이를 縮小하는 結果에 도달하였다. 「主體的 새 樂器 편성」이라 하여 傳統樂器와 西洋 音樂 樂器를 混成하여 관현악을 편성한 것은 여러가지 무리를 범한 것인데,¹⁴⁾ 그 實際效果는 미지수이다. 관현악곡의 音樂的 水準은 아주 낮은 것으로 評價된다.¹⁵⁾

北韓音樂에서 가장 힘을 기울이는 部分인 歌唱曲의 경우에는 歌詞의 內容이 大部分 金日成 禮讚과 社會主義 建設 勞力 昂揚에 바쳐져 있음은 勿論,¹⁶⁾ 旋律과 歌唱法에서도 판에 박힌 寬容的 技巧

註 13) 張師助, 「北韓의 國樂」, 北韓의 文化藝術, p.291 參照.

註 14) 上揭書, pp.278 ~ 290 參照.

註 15) 羅仁容, 「北韓의 管絃樂曲 編曲의 問題點」, 北韓의 文化藝術, pp.297 ~ 305.

註 16) 1977 年에 出刊된 「조선명곡 . 600 곡집」.(平壤:文藝出版社) 을 한 例로 들어 보면, 이른바 「藝術歌曲」에 속하는 302編 가운데 金日成 偶像化를 위한 노래가 232編으로 80%에 달한다. 韓相宇, 「北韓의 歌唱曲 分析」, 北韓의 文化藝術, p.329 參照. 이 점은 本 研究의 1次資料로서 檢討한 '조선명곡집

의 限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¹⁷⁾

藝術 行爲 가운데서도 人間의 가장 本源的인 慾求와 感性에 呼訴하는 것이 音樂임을 생각할 때 北韓 音樂의 이와 같은 單調性은 表面上의 活力과 樂天的 분위기와는 달리 매우 취약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個人的 體驗의 질실성에 根據하지 않은 歌詞와 慣習化된 常套의 旋律은 閉鎖的 文化空間 안에서 그 效力을 發揮할 수 있을지언정 그보다 다양하고 유연성 있는 音樂 經驗 앞에서도 持續的인 影響力을 維持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論理的·概念的 強制가 가장 貧弱한 힘을 가질 수 밖에 없는 音樂分野의 이 特性이 北韓 藝術의 對外的 開放에 있어 특히 취약한 部分의 하나가 아닌가 한다.

演劇·舞台藝術： 北韓 藝術의 大作主義的 選好도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마도 演劇 및 舞台藝術에서일 것이며 아울러 演劇, 舞蹈, 音樂, 歌劇, 映畫의 手法이 混合된 綜合的·集體的 製作方式 또한 特記할만한 事項이다. 그들이 海外에서의 巡廻公演으로까지 자랑스럽게 내보인 歌劇 「피바다」가 이미 그러한 事例이거니

6' (平壤：文藝出版社, 1979)에서도 동일하여, 「수령님 사랑 속에 우리 행복 꽃피네」라는 첫 곡에서 시작하여 「만풍년의 우리 祖國 온 세상에 자랑하세」라는 마지막 노래에 이르기까지 金日成 禮讚이 아니면 觀念化된 社會主義 낙원의 찬미로 始終하고 있다.

註17) 韓相宇, '北韓의 歌唱曲 分析', 前掲書, pp.334 ~ 341 參照.

와, 근간의 作品 「영광의 노래」에 대한 다음의 서술에서도 이를 把握할 수 있다.

「이 해 (1982年) 舞台藝術 部門에서 이룩된 特記할만한 成果는 敬愛하는 수령 金日成 同志의 탄생 70돐을 경축하여 평양시 안의 5千名 藝術人들이 參加하는 음악무용서사시 '榮光의 노래'를 創造·公演한 것이다.....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는 音樂과 舞踊을 基本으로 하고 여기에 설화시와 영화적인 手法을 配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에 이룩된 舞台藝術의 成果에서 「영광의 노래」의 音樂과 舞踊 형상에서 얻어진 革新的 成果는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음악무용서사시 '영광의 노래'의 音樂을 형상함에 있어서는 革命 發展의 매 시기마다 創作된 名曲들, 人民들의 가슴속에 깊은 인상을 남겨놓은 노래들로 作品을 엮어 시대상이 나타나면서도 력사적으로 貫通되도록 하였다」¹⁸⁾

이처럼 방대한 規模의 設備, 人員 및 各 分野의 技法을 總動員하는 製作은 北韓 社會의 藝術이 強力한 權力組織의 裝飾的 附屬物로서 可能的 限 웅대한 規模와 화려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必要에 基因한 것이며, 그 外觀上의 壯麗함이 반드시 藝術的 價値의 진

註18) 朝鮮中央年鑑：1983, p.353.

정성을 保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藝術的 價値의 評價 以前에 舞台 表現이 發揮하는 外形的 效果의 比較가 또한 중요한 事項이 될 수 밖에 없는 南北 交流에 있어서 이러한 綜合的·集體的 大作이 주는 압도성은 상당히 클 可能性이 있으리라 推定된다.

이에 비하여 南韓의 演劇 및 舞台藝術은 때때로 大規模의 設備, 人員 및 複合的 技法을 動員하여 製作되는 作品이 없지 않으나, 수많은 劇團·舞踊團과 몇몇 “오페라”團·唱劇團의 中·小規模 公演이 主流를 이루고 있으며 그 內容 및 性格이 극히 다양하다. 우리의 舞台藝術은 映畫·“텔레비전” “드라마·쇼우” 등의 大衆藝術 部門과 對照的인 性格을 形成하면서 高級化된 文化慾求의 수용에 置重해 온 데에 따라 藝術的 세련과 깊이는 北韓의 舞台藝術보다 卓越하나, 歷史的 現實의 問題를 強烈한 群衆演出과 감정의 격앙에 힘입어 “스펙터클” 화하는 「피바다」, 「영광의 노래」류보다는 公演 現場에서의 直接的 衝擊 效果가 적을 可能性이 많다. 이 점은 藝術 그 自体의 價値 以外の 事項이 重要的 役割을 하게 되는 南北 交流에 있어서 신중히 考慮되어야 할 事實의 하나이다.

映畫: “스탈린”은 1950年代에 「시네마는 大衆煽動의 가장 좋은 方法이다. 그것을 掌握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만일 내가 映畫 매체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수년 내에 온 世界를 共產化하는데 더 이상 必要的 것은 없다」라 했다.¹⁹⁾ 北韓의 映畫 또한 이와 동

註19) “제임스 마틴”, 情報化 社會 (情報時代, 1984), p.90.

일한 共產主義的 映畫 理論의 産物로서 創造되고 있다. 그것이 아마도 다른 共產圈 國家에서보다 훨씬 철저한 교조적 理念性에 支配되고 있으리라는 데에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에 反하여 우리의 映畫는 極少數의 事例를 除外하고는 映畫製作社와 影響力 있는 劇場主들의 市場 判斷에 바탕을 두고 多數 大衆의 趣向에 부응하는 것을 目標로 하여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그 가운데에는 健全한 素材와 참신한 主題를 잘 살린 秀作들도 있으나, 보다 많은 作品들이 愛情 葛藤, 暴力, 社會의 병리적 局面 등을 素材로 하는데 치우쳐 있음을 否定하기 어렵다. 따라서 그 진정한 意味를 正當하게 이해하려는 關心이나 餘裕가 隨伴하지 않는 경우, 이들 映畫 중의 상당수는 北韓側이 極烈하게 악선전하는 바 「南朝鮮에서 創作되는 文藝作品들과 映畫들은 ‘反共’과 崇美 事大主義, 個人主義에 기초한 黃金 萬能主義, 色情과 野獸性, 詐欺, 致富를 禮讚하는 반동적이고 末世紀的인 文化藝術로 되어가고 있다」는²⁰⁾ 현상적 증거로 誤用될 可能性이 排除되지 않는다.

北韓 映畫는 모든 創造의 主體와 源泉을 金日成에 結付시키는”이데올로기”적 도식성에다 구태의연한 新派調의 感情主義에 호소하는 技法的 特徵을 띠는 點에서²¹⁾ 참다운 인간적 感動의 깊이를 결하고

註20) 朝鮮問題研究所 編, 南朝鮮 便覽 1 : 개관 (東京 : 時代社, 1981), p. 328.

註21) 金正鈺, 「北韓 映畫의 藝術性과 思想性」, 北韓의 文化藝術, p. 489 參照.

있다. 그러나 그들의 劇映畫(北韓用語로 藝術映畫)는 뚜렷한 善·惡·二元論의 도식에 根據를 둔 社會主義的 人間상의 美化를 映象化하는데 注力하고 있는 만큼 영상과 實在의 批判的 區別이 불충분할 경우 그 인상은 오도될 수도 있다. 가령 1982年의 北韓 映畫 代表作 「숲은 설레인다」에 대하여, 「깊은 산중에서 祖國의 푸른 숲을 가꾸어 가는 한 平凡한 山林補助員의 이야기를 通하여 오늘 우리 당의 품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主體型의 새인간, 숨은 愛國者의 崇高하고 아름다운 精神世界를 감명깊게 보여주고 있으며, 全體 人民이 숨은 英雄들처럼 살며 일하려는 崇高한 指向을 안고 일해 나가고 있는 우리 祖國의 자랑스러운 現實을 보여주고 있다」²²⁾라고 叙述한 內容을 볼 때, 그러한 可能性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이 점에서 映畫 分野는 交流作品의 選別에 신중한 檢討가 따르지 않을 경우 國家 統制下의 目的主義的 藝術과 開放社會의 大衆迎合的·商業主義的 藝術의 表面的 比較가 바람직하지 못하게 나타날 수 있는 領域의 하나라 判斷된다.

傳承藝術·民俗놀이 : 마지막으로 檢討할 傳承藝術·民俗놀이 部分은 南北 藝術 交流의 對象 領域 중에서 基本的 接近 可能性과 意義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그 效果도 클 것으로 期待되는 分野이다. 이 部門은 南北間의 理念的 分裂과 兩極化가 이루어지기 前인 傳統社會의 藝術·民俗인 까닭에 相互間의 異質性이 여타 藝術보다

註 22) 朝鮮中央年鑑 : 1983, p.344.

는 적고 民族的 同質性的 回復이라는 相互 交流의 명분 및 實質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北韓側이 南韓 社會의 실상을 歪曲하여 惡意的으로 非難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民間의 傳統藝術을 充實히 保存·繼承하고 있지 못할 뿐더러 적지 않은 歪曲을 가하기도 하였다는 點에서 이 部門의 交流가 가져오는 比較優位의 效果도 적지 않다. 北韓만이 民族文化의 傳統을 올바르게 살려 왔고 南韓에서는 그것이 여지없이 훼손되면서 外來文化가 汎濫하고 있다는 그들의 主張은 다음과 같은 發言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지금 南朝鮮에서는 美·日 반동들과 그 앞잡이들의 民族文化 말살 政策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民族文化가 여지없이 짓밟히고 썩어 빠진 양키文化와 왜색, 왜풍이 판을 치고 있으며 人民들의 精神世界를 좀먹고 있습니다」²³⁾

「南朝鮮 당국의 구미문화의 '韓國化'와 民族文化의 '現代化'策動에 의하여 南朝鮮에서 創作되는 文藝作品과 映畫들은 反動的이고 末世紀的인 文化藝術로 되어가고 있으며, 南朝鮮은 우리 人民의 固有한 民族文化가 유린되고 구미 反動文化가 차넘치는 썩어빠진 文化藝術의 '國際展示場'으로 되고 있다」²⁴⁾

註23) 金日成 著作選集, 第2卷, p.458.

註24) 朝鮮問題研究所 編, 南朝鮮 便覽 1: 개관 (東京: 時代社, 1981), p.328.

이와 같은 非難이 실상과 크게 어긋난다는 點은 새삼스러이 말할 必要조차 없다. 우리 自身の 指向하는 바 理想에서 볼 때 民族文化와 藝術에 대해 좀더 많은 關心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것은 當然한 명제이지만, 光復 以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南韓에서는 民間의 자각적 努力과 政府의 支援에 의해서 갖가지 傳統文化 遺産과 藝術 및 民俗놀이 發掘·整理·保存·전수되어 왔고, 이에 基盤한 主體的 繼承의 努力 또한 活潑하였기 때문이다. 政府가 힘써 온 有形·無形 文化材 指定과 保存, 韓國精神文化研究院에서 最近 數年間に 걸쳐 全國을 對象으로 廣範하게 進行하여 마무리 段階에 있는 口碑文學 調查 事業, 高大 民族文化研究所가 編纂한 「韓國民俗大觀」 全6卷을 통하여 입증되는 바 傳統文化·藝術에 대한 學問的 關心의 廣範함과 깊이, 各地域 및 大學街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傳統藝術의 活氣찬 전수등이 그 단적인 예이다.

반면에 北韓은 그들의 主張과는 달리 繼承되어야 할 傳統藝術의 範圍에서 中世 上層文化에 해당하는 部分을 편협하게 제거하였고, 民俗藝術과 놀이 또한 상당한 潤色·變形을 가하여 그 本質을 歪曲한 예도 많은 것으로 觀測된다. 그들은 「社會主義 民族文化」를 發展시키되 復古主義的 傾向을 철저히 반대한다는 原則 아래 「民族文化 遺産을 繼承한다고 하면서 지난날의 낡고 반동적인 것을 덜어내고 그대로 옮겨 놓으며 미화 분식하는 傾向과 強하게 鬭爭하여야 한다」고 主張하면서, 「우리는 民族文化 遺産 가운데서 뒤떨어지고 반동적인 것은 버리고 進步的이며 人民的인 것은 오늘의 社

會主義 現實에 맞게 批判的으로 繼承 發展시켜야 한다」²⁵⁾고 본다. 그러나, 「오늘의 社會主義 現實에 맞게 繼承·發展시킨다」는 名分 아래 民俗藝術의 상당부분이 金日成主義의 부속물이 되어 버린 점을 쉽사리 確認할 수 있다. 예컨대, 1979년에 나온 「朝鮮民謠曲集」(평양:문예출판사)을 보면 10곡의 「民謠」樂譜와 歌詞가 실려 있으나, 民謠의 原形을 대체로 保存하고 있는 것은 「노들강변」 하나 뿐이며, 「조선팔경가」와 「양산도」는 일부 가사가 現實 讚美로 개작되고, 나머지 7곡은 「수령님 은덕으로 大豐이 들었네」를 筆頭로 하여 모두 社會主義 現實의 幸福함을 熱誠的으로 美化하는 것들에 不過하다.²⁶⁾

더우기 우리 民俗藝術과 傳承놀이 대부분이 自然村落 共同體와 血緣的 紐帶를 기반으로 하여 成立·持續된 것인데, 北韓의 경우는 社會主義的 生産體制의 整備와 生活地域의 大的인 再編成에 따라 이들 傳統藝術의 상당부분이 그 存在基盤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그 傳承 狀況은 극히 貧弱할 수 밖에 없다. 南韓에서는 아직도 各地

註 25) 金日成, 「朝鮮勞動黨 第5次 대회 中央委員會 事業總和 報告」, 勞動新聞 1970.11.3.

註 26) 1966년의 「朝鮮民謠曲集 第3輯」(音樂大學 音樂研究所 編, 朝鮮文學藝術同盟出版社 刊行)이 平安·咸鏡·黃海道를 중심으로 하고 南韓 地域의 일부 資料까지를 包含하여 傳統民謠를 현지조사 또는 傳承者 歌唱 採錄 방식에 따라 比較적 원형에 충실하게 정리한 것을 보면, 民俗藝術의 改作·歪曲이 특히 심하여진 것은 1960年代 중엽 이후가 아닌가 추정된다.

域에 存續하거나 政府 및 民間의 支援에 의해 전수되고 있는 各種 民俗藝術과 놀이-예컨대, 농악·탈춤·판소리·줄다리기·고싸움·차전놀이·뚝다리밟기·지신밟기·연날리기·그네뛰기·널뛰기·햇불싸움·쇠머리대기·각종 傳統民謠와 民俗音樂을 北韓 住民들이 접할 수 있다면 이와 같은 對照的 狀況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²⁷⁾ 民族文化와 歷史의 豊富한 遺産을 충실히 保存 管理하면서 새로운 創造으로 나아가는 쪽이 民族史의 주인이라 볼 때, 이 분야의 실상을 交流하여 觀念의 허상을 깨뜨리는 일은 중요한 意義를 가진다. 그리고 이 方面의 接觸은 갈등과 對立을 最小化하면서 基層文化의 共同根據를 確認하며, 도식적 社會主義 文化속에 抑壓되어 있던 民族的 생활사의 記憶과 감성을 불러 일으키는 데에도 效果가 있으리라 展望된다.

다. 交流의 可能性 및 分野別 類型

모든 交流·協力이란 關聯 當事者 雙方이 각기의 損益 檢討에 따라 進退를 選擇하게 되는 만큼 南北藝術 交流에 있어서도 어느 일방의 希望대로 만 事態가 展開될 수는 없을 터이나, 여기서는 우리側의 長·短期的 기대가치와 交流의 자연스러운 進展 可能性이란 두 要因을 中心으로 삼고 北韓側의 對應 可能性을 추론적으로 고

註27) 韓國의 各種 民俗藝術과 傳承놀이에 관하여는 高大 民族文化 研究所 編, 韓國民俗大觀(1982) 제4, 5卷에 광범하게 정리된 바 있다.

려하면서 交流의 可能性과 分野別 類型을 檢討하고자 한다.

政治體制와 理念을 달리하는 南北韓의 交流를 순조로이 推進하는데 고려되어야 할 一般的 順序는 ①間接에서 直接으로, ②國外에서 國內로, ③물건에서 사람으로, ④非政治分野에서 政治分野로 誘導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交流의 基本 要件으로는 ①名分性, ②최소 政治性, ③實利性, ④緊張 緩和, ⑤최소 危險性, ⑥異質性 克服, ⑦단일 民族意識 鼓吹 등의 事項이 最大限 살려지도록 해야 한다.²⁸⁾

이와 같은 諸般 事項을 考慮하여 南北 藝術交流의 基本的 接近 原則을 設定한다면 다음의 세 가지로 要約할 수 있다.

- (1) 同質的·傳統的 要素가 많은 것의 交流를 선행하고, 異質的·當代的 要素가 우세한 것을 나중에
- (2) 靜態的·사물적인 것의 交流를 선행하고, 動的·行爲的·言語的인 側面이 강한 것을 나중에
- (3) 人間 經驗의 普遍的·감성적 部分에 關係된 것을 선행하고, 歷史的 現實的인 것을 나중에

그러면 이러한 基本 原則이 具體的 藝術 交流에 있어서 어떤 形態와 優先順位에 따라 推進될 수 있는가? 이 問題에 대한 假說的 展望을 얻기 위해 우선 分野別 交流의 一般的 可能形態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註28) 都興烈, 「非政治分野의 交流實踐戰略」(國土統一院, 1973), pp.8~9 參照.

1) 文 學

- ① 作品集 交換
- ② 文學人 相互訪問

2) 美 術

- ③ 古美術品·古書畫·工藝品の 交換 展示 및 共同展示
- ④ 現代美術品 交換 展示
- ⑤ 美術品 共同 展示(國內 相互 往來, 또는 中間地域)
- ⑥ 美術品 海外 共同 展示
- ⑦ 美術人 相互 訪問 및 素材 탐방

3) 音 樂

- ⑧ 傳統樂器 및 그 改良種 共同展示·研究
- ⑨ 音樂 演奏 資料(錄音 “테이프”, 레코드” 등) 交換
- ⑩ 器樂 音樂團 交換 演奏
- ⑪ 聲樂 音樂團 交換 演奏
- ⑫ 海外 共同 演奏會 開催
- ⑬ 音樂人 相互 訪問
- ⑭ 傳統音樂 保存·整理 結果 交換 및 意見 交換

4) 演劇·舞臺藝術

- ⑮ 文化藝術人이 相對地域을 訪問하여 演劇·舞臺藝術 觀覽
- ⑯ 無言 舞臺藝術(舞踊 등) 交換公演
- ⑰ 有言 舞臺藝術 交換公演
- ⑱ 海外 聯合公演

5) 映 画

- ⑲ 民俗·文化遺蹟·名勝 등에 관한 記錄映画 ฟิล름 交換
- ⑳ 劇映画 ฟิล름 交換
- ㉑ 映画人 相互 訪問
- ㉒ 映画 製作 技術·資材 및 經驗 交換
- ㉓ 傳統文化·遺蹟·名勝 등에 관한 記錄映画 共同 製作

6) 民俗藝術·傳承놀이

- ㉔ 民俗工藝品 保存資料 交換展示·共同展示·海外展示
- ㉕ 農樂 交換公演·海外公演
- ㉖ 地域的 特性이 있는 民俗藝術·놀이 觀覽 招請
- ㉗ 民俗藝術團 相互 訪問 公演
- ㉘ 聯合 民俗藝術團 海外公演
- ㉙ 各地域 傳承民謠 歌唱會(中間地域에서 共同 開催, 或은 交換 開催)
- ㉚ 地域別 傳統 탈놀이·民俗놀이 交換公演
- ㉛ 民俗藝術·傳承놀이 정리 및 保存狀況에 대한 資料 交換
- ㉜ 民俗學者·民間藝術 研究者 相互訪問 및 意見 交換

위에 提示된 6個 分野를 보면 우리에게 長·短期 展望 모두에서 현저하게 有利하다고 判斷되는 分野로서 美術·音樂, 民俗藝術·傳承놀이 3個 部門을 들 수 있으며, 長期的으로는 우리에게 有利하나 短期的으로는 雙方中 어느 쪽도 損失을 念慮하지 않을 수 있

는 分野로서 文學을 꼽을 수 있다. 그리고 演劇·舞臺藝術과 映畫 部門은 交流의 長期的 展望에서 볼 때 不利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나 交流 對象 作品의 選定과 接近 方式의 運用 如何에 따라서는 短期的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認識上 錯誤가 발생되거나 逆宣傳 기회를 허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 檢討될 만하다.

또한 이들 分野 全般에 걸쳐 上程해 본 32個 交流·協力 類型을 接近의 난이도 및 得失의 可能性에 따라 分類해 보면 다음과 같은 大體的 區分이 可能하다.

(가) 人的要素를 同伴하지 않은 物的 交流·往來가 주가 되는 것으로서 相互間에 直接的 得失의 優劣을 意識하지 않고 接近이 시작될 수 있는 類型: ①, ③, ④, ⑤, ⑧, ⑨, ⑱, ⑳, ㉔, ㉕,

(나) 制限된 範圍의 人的 交流 및 相互 觀察이 可能하며, 理念的 對立性이 比較的 적게 나타나거나 一定 範圍에 局限될 수 있는 類型: ②, ⑦, ⑩, ⑬, ⑭, ⑮, ⑯, ㉑, ㉒, ㉖, ㉗, ㉚

(다) 民族文化의 傳統的 遺産과 同質性을 確認하며 축제적 만남의 狀況을 造成할 수 있는 類型: ㉓, ㉘, ㉙, ㉛

(라) 海外에서의 共同行事로서 相互 協力 및 交流의 모습을 宣揚하는 類型: ⑥, ⑫, ⑰, ㉚

(마) 運營方式 및 交流 作品 選定에 따라 뚜렷한 對立性이 多

수 大衆에게 노출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刺戟 效果가 發生될 수 있는 類型 : ⑪, ⑰, ⑳

以上과 같은 區分에 입각하여 볼 때 南北韓 藝術分野의 交流・協力에 있어서 相互 接近의 進展性이 전제된 進行 優先順位는 (가) - (나) - (대) - (래) - (매)의 순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우에 따라 (대)의 交流가 (나)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4. 交流·協力の 方案과 問題點

가. 南北韓 提議 事例 分析

南北韓 藝術 交流의 方案과 이에 수반하는 問題를 把握하기 위하여 필요한 또 하나의 과제는 지금까지 쌍방이 提議한 바 있는 事例를 整理·分析하는 일이다. 南北 交流의 問題가 오늘날에 와서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닌 한, 당연히 그 前史的 背景이 있으며, 이의 分析에 따라 우리는 北韓側의 動向 및 態도와 그에 대한 對應 方案을 구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南韓側의 主要 提議 事例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⁹⁾

1973. 6. 12, 第3次 南北調節委 서울會議에서 李厚洛 委員長 晩餐演說: 社會·文化 分科委員會를 早速히 발족시켜 南北 間에 藝術·文化 分野의 交流, 體育分野의 交流와 國際競技 단일팀의 構成, 映画·舞台藝術의 交流……等 社會的 共同利益과 便利를 추구하며 民族 固有의 文化를 創達하는 事業들을 實踐에 옮겨야 될 것.³⁰⁾

1976. 4. 12, 장기영 南北調節委員長 代理, 김영주에 電話 通知文:

註 29) 以下の 南北韓 提議 事例에서 별도로 출처가 명시되지 않은 것은 國土統一院, 「南北韓 統一方案 및 主要 提議 比較」 (1984. 6) 에 정리된 바를 參照한 것이다.

30) 國土統一院, '南北韓의 非政治的 接觸 交流 沿革' (1973), P. 144.

古美術品 相互 交換 展示 提議 南北 古美術品 交換展示 및 考古
學者의 交流·쌍방의 합의에 따라 해외에서 共同展示.

1981.11.17, 이광표 文公部長官 提議 : 南北韓 文物交換 提議.

1982. 2. 1, 孫在植 國土統一院長官, 20 個 示範 實踐事業 提議:
民族史 共同研究 推進 提議, 民族文化의 繼承 發展을 위하여 民族
史의 共同研究를 推進.

이에 비해 北韓側의 藝術 交流 提議는 좀더 많고 얼핏 보기에
구체적이다.

1956.10.14, 제 2 차 朝鮮作家大會 : 南北의 個別的 作家들과 북의
作家同盟과 南韓의 文學藝術團體들 사이에 相互書信과 作品 交換 提
議 經驗交換會, 討論會, 研究會 등을 組織하고 作品取材를 위한 相
互 旅行의 길 開放 提議.

1957. 9.20, 最高人民會議 제 2 기 1 차회의, 金日成 演說 : 南北間
의 文化交流를 위한 구체적 措置를 취할 것을 提議.

1960. 8.14, 8.15 慶祝大會, 金日成 演說 : 南北韓 文化使節의 往來,
文化藝術分野交流 提議.

1960.11.19, 最高人民會議 제 2 기 8 차회의, 최용건 報告; 映畵 필
름 交換 提議.

1961. 3. 3, 文藝總 結成大會 : 文學藝術의 交流 및 民族文學 藝術
의 統一的 發展 圖謀를 提議.

1962.10.23, 最高人民會議 제 3 기 제 1 차회의, 金日成 演說 : 文化
交流와 協助 實現을 위하여 南北 대표들로 委員會 組織을 提議.

1966. 9.17, 美術家同盟中央委 委員長 정관철 提議: 南北 共同
美術 展覽會 開催 提議

1971. 4.12, 最高人民會議 제4기 5차회의, 外相 許鎔 提議: 南
北韓 文化·藝術 등 다방면적 交流와 協助 實施 提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側의 文化藝術 分野 交流 提議는
1970 年代初까지 많이 등장하다가 그 以後에는 具體的인 모습을 보
이지 않는다. 또한 그 內容은 文化·藝術 交流 및 「民族文學·藝
術의 統一的 發展을 위하여」라는 抽象的·一般的인 것이 많으며,
비교적 具體性을 띤 것은 1956 年の 文學作品 및 文學의 交流 提
議와 1966 年の 南北共同美術展覽會 開催 提議에 그친다. 그들이
南韓의 藝術에 대하여 民族文化의 遺産을 「양키화」하여 말살한다
고 非難하면서도 傳統藝術의 交流를 提議한 사실이 보이지 않은 점
도 注意할 만하다.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건대, 北韓側의 南北 藝術
交流 提議는 相互接近의 실질적 성취보다는 宣傳效果의 達成에 치
중된 것이었으며, 그것이 1970 年代初까지 활발하였다가 그 以後에
는 顯著하게 消極化되었음을 指摘할 수 있다.

반면에 南韓側의 藝術 交流 提議는 70 年代에 들어서 여러 차례
나타났고, 古美術品 展示·交流 提議라든가 民族史 共同研究 提議 등
政治性을 排除한 方面에서 具體的 方案을 提示한 點이 주목된다.
다만, 이와 같은 肯定的 姿勢에도 불구하고 提議의 다양한 실질을
確保하는데에는 더 補充·擴大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判斷된다.

이상의 사실을 綜合해 볼 때, 藝術 分野의 交流에 있어서 接近

態도의 前進的 자세는 70年代初 以後 明確히 南韓 側에 있으며, 北韓側이 消極的인 位置로 물러났다는 點을 結論지을 수 있다. 이와 같은 局面에서 필요한 것은 우리의 提議를 그들이 回避하지 못하도록 하는 當爲的 名分과 다양한 交流·協力 方案의 提示일 것이다.

나. 交流·協力の 方向과 長·短期 對策

交流·協力の 方向을 設定하는데 있어서는 앞서 言及한 바와 같이 最少政治性, 名分性, 同質的 相互 接近 可能性의 要件이 重視되어야 한다. 아울러, 一般論的 原則으로 볼 때 物的 交流를 人的 交流보다 우선하며, 傳統的 要素가 강한 藝術 部門을 그렇지 않은 部門보다 重視해야 한다는 要求도 對內外的으로 커다란 說得力을 가질 것이다.

막혀 있던 對立的 體制 사이의 交流는 물론 어느 쪽에도 전혀 부담을 주지 않을 수는 없다. 그러나 交流의 成立에 의해 보다 重大하고도 本質的인 影響을 입은 것은 閉鎖性을 고집해 온 社會體制이다. 다시 말하여 交流의 폭이 넓고 그 持續 期間이 오를수록 北韓側은 이를 소화하기 위한 體制 內的 부담을 더 많이 안게 되며, 스스로의 完강한 支配構造를 再調整하지 않을 수 없는 局面에 부딪히게 될 것으로 觀측된다. 따라서 우리가 취할 바람직한 方向은 短期的 觀點에서의 顯著한 利點과 效果만을 期待하는 交流 方

案보다는 相互 接近의 歷史的 當爲性을 폭넓게 부각시키면서 점진적으로 交流를 擴大하여 나아가는 方策의 樹立이다. 그런 각도에서 앞서의 交流 類型別 檢討를 바탕으로 南北 藝術 交流와 協力の 優先順位를 設定하면 다음과 같다.

(1) 古美術品·工藝品·古書畫·傳統樂器(改良種 포함)의 交換展示 또는 共同展示會 開催, 傳統音樂·民俗藝術·口碑文學·전승놀이에 관한 調査·保存·整理 資料 交換.

(2) 文學作品集, 音樂 演奏 資料, 民俗·文化遺蹟·名勝에 관한 기록영화 필름 舞台藝術 錄画 필름, 劇映画 필름 등의 交換, 양측의 藝術人들이 상대방측의 藝術家들을 訪問하여 生活方式, 藝術 作業 現場, 創作 經驗 등에 관해 意見을 나누는 일.

(3) 위의 두 段階가 순조로이 진행될 때 發展的으로 民族文化·藝術의 공통유대를 確認하는 行事로서 農樂 交換公演, 民俗藝術團 相互 訪問 公演, 各 地域의 특징적 民俗놀이·藝術 觀覽 招請, 傳承民謠·탈놀이 發表會 등 多數 觀覽者와 行事者가 參與하는 傳統 藝術의 만남 行事.

(4) 위의 어떤 段階에서는 雙方이 합의 할 경우 藝術品과 藝術 行事를 海外에서 共同으로 展示·發表.

(5) 기타 南北 分斷 以後의 現代藝術 諸部門에 속하는 舞台藝術

의 相互 交換 公演과 藝術品 제작상의 物的·技術的·素材의 協助 및 便宜 提共

물론 위에서 다섯 段階로 나눈 交流 優先順位는 어디까지나 실행상의 바람직한 순서에 관한 것이지, 提議의 優先順位는 아니다. 南北 藝術 交流·協力を 提議할 경우 위의 內容들을 대체적인 優先順位를 부여하되, 綜合的인 提案으로서 한꺼번에 提示되거나, 基本 原則만이 합의된 후 實務委員會에서 決定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우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優先順位에 대해 北韓이 다른 見解를 提示해 올 境遇, 이에 融通性 있게 對處할 수 있는 事前 準備도 필요하다.

다만, 실제 진행상의 難點만 解決된다면 (1), (2), (3), (4)의 交流는 順序가 다소 變更되거나 同時的으로 推進되어도 問題가 없으나, (5)의 交流·協力を 다른 部分보다 先行하자는 주장이 나올 境遇에는 신중한 對應이 要望된다. 이미 言及한 바 있듯이 (5)의 部分은 北韓 舞台藝術의 철저한 理念性和 막대한 人員·物量·技法을 총동원한 大作主義 및 격정적 자극의 特性에 비하여 우리측의 舞台藝術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이 短期的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조를 이룰 可能性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傳統藝術 部分의 交流와 物的 要素의 交換이 이루어지기도 前에 共同製作이나 協力的 提議가 오게 된다면 이 또한 藝術 交流의 關係를 다른 種類의 目的에 利用하려는 低意를 가진 것이 明白할 터이므로 各別한 境界가 必要할 것이다. 提議의 主體는 現段階의 狀況으로 보아 政府 關係機關

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 北韓側의 境遇 과거의 사례로 보아 藝術機關(藝術家同盟, 作家同盟 등)이 提議의 表面上 主體가 된 例가 있으나 역시 그들의 政治的 事前 準備에 따른 것임은 말할 必要조차 없다.

일단 提議에 대해 肯定的 反應이 있을 境遇에는 具體的인 實行主體가 先定되어야 하는 바, 北韓側은 비록 民間·社會團體의 資格을 갖춘 듯이 보이는 機關이나 그 構成員도 一貫된 體制 力學 속에서 저들 政權의 代理體로서의 숙성을 그대로 지니게 마련인데 비해 南韓側은 民間藝術團體와 그 構成員이 이를 상대하게 되는 데에 유의할 必要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交流 實行的 主體를 國家機關에서 擔當하는 것은 이를 民間藝術機關에 完全히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도 效果的인 方法은 南北 藝術 交流·協力을 위한 民間藝術機構 協議體 혹은 特別 委員會를 構成하고 이 機構가 諸般 實行上의 問題를 擔當하면서 政府側의 關係機關과 긴밀한 協力 體制를 갖추고, 한편으로는 各 藝術分野 實務 關係者들의 活動을 有機的으로 調整하게끔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方案은 순수한 藝術次元 이외의 問題가 많이 개재될 수 밖에 없는 南北 藝術 交流에서 效果的인 一貫性을 유지하면서 開放社會가 지니고 있는 藝術的 多樣性의 資源을 充分히 收斂하는 데에 效果的일 수 있다.

아울러, 交流·協力の 提議와 實行에 必要한 長·短期 對策을 樹立하는데 있어 留意될 만한 事項을 摘示하면 다음과 같다.

* 短期的 對策 關聯 事項

- 1) 南北 藝術 交流·協力 提議에 대한 國內外的 認識에 차질이 없도록 치밀한 弘報對策을 마련한다. 특히 北韓側 藝術의 現況과 特性에 대한 國內의 一般的 認識이 아직 부족한 만큼 이에 대한 漸進的 準備가 必要하다.
- 2) 交流·協力 提議의 對象이 되는 藝術品, 藝術人力의 現況이 事전에 點檢·再確認되어야 한다.
- 3) 北韓側 藝術 現況에 관한 最近의 資料를 整理하고, 특히 傳統藝術·民俗놀이 部門의 實態를 綜合的으로 把握한다. 傳統藝術과 놀이 部門에는 北韓地域의 것을 越南한 技能保有者가 온전하게 維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음에 유의한다.
- 4) 交流의 優先順位를 設定하고 그 根據를 分明히 하되, 있을 수 있는 狀況的 變動에 對處할 수 있는 方案을 準備한다.
- 5) 北韓側의 南韓의 藝術을 批判하는 主要 對象과 논거에 대해 응수할 수 있는 對策을 準備한다.

* 長期的 對策 關聯 事項

- 1) 藝術 交流에 隨伴하는 生活文化의 次元에서 開放社會의 가치체계가 지닌 優越性を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誘導한다.
- 2) 北韓의 住民들은 철저한 理念·思想 教育에 의해 觀念世界가 形成되어 있는 만큼 理念價値의 直接的 충돌보다는 社會主義的 統制에 의해 變形되기 以前의 傳統的 生活價値 및

藝術體驗과 人間의 普遍的·感情的 欲求에 호소하는 藝術의 接觸 機會를 確保하여 나아가도록 한다.

- 3) 南北韓 鄰接國과 國際社會에서 南北間의 藝術 對備를 通해 文化的·社會體制的 優劣이 뚜렷이 認識될 수 있도록 한다.

다. 豫想되는 效果와 問題點

政治的 協商·交流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社會 文化 交流에 있어서도 交流를 통해 어떤 一方이 상대방보다 越等한 利得을 보려고 하거나 또는 그렇게 될 수 있는 狀況에서는 交流란 不可能하게 되며, 交流를 통해 雙方이 利益을 보거나 혹은 이를 許容할 수 있는 狀況 條件이 마련된 境遇에 어느 정도 實效를 거둘 수 있다.³¹⁾ 따라서 南北 藝術 交流·協力이 단순히 提議 段階에서 그치고 말 境遇에는 別 問題이거나, 실제로 어떤 方式으로든 接觸이 실현될 때에는 우리側의 期待에 완전히 符合하는 效果만이 나타나리라는 保障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오히려 우리가 豫想해야 할 것은 여러가지 肯定的 側面과 더불어 一部 否定的이거나 問題的인 양상 또한 나타나게 되는 進行이며, 이를 전제로 하여 적절한 對應 方案이 摸索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藝術 交流에 의해 얻어질 수 있는 肯定的 效果를 推定한

註 31) 金東熙, 「南北韓 社會文化 交流 綜合 對策」(國土統一院, 1974), pp. 74 ~ 75 參照.

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다.

① 閉鎖된 北韓社會에 開放的인 世界의 生活體驗과 價値를 접촉케 함으로써 획일적인 理念支配 體制에 대한 批判的 認識의 底流가 촉발 혹은 擴大될 것이다.

② 民族文化의 遺産과 民俗藝術·傳承놀이 등의 交流는 아직 殘存하고 있는 民族的 同質性의 根據를 상호 확인케 하여 南北間의 極限的 對立 및 緊張을 緩和하는데 寄與할 것이다.

③ 北韓側이 持續的으로 非難해 온 바와 달리 南韓에서 傳統藝術이 더 충실하고도 歪曲되지 않은 모습으로 保存·繼承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들의 從來에 非難해 온 바의 虛構性이 立證될 수 있다.

④ 우리의 能動的 자세와 交流 實行의 의지는 國內外的으로 社會體制的 優位性에 대한 자신의 표현으로 다시금 確實하게 부각될 것이다.

⑤ 北韓의 藝術이 「金日成 唯一思想」에 완전히 隸屬된 狀態에 있는 만큼 이를 접하는 契機를 통해 우리 國民들은 北韓 共產社會의 실상에 대해 보다 뚜렷한 認識을 가지게 된다.

⑤ 藝術品과 藝術活動에 直接·間接으로 關聯된 技術 및 經濟的·社會的 進歩性의 程度가 대비됨으로써 두 社會構造 사이의 生産的 發展에 관한 隔差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반면에 北韓側의 戰略과 利用 方法에 따라 派生 혹은 擴大될

수 있는 問題點으로 다음의 사항을 考慮할 必要가 있다.

① 共產社會의 실상에 대해 不充分한 認識을 가진 國民들에게는 反共 理念과 藝術 交流의 經驗 사이에 價値賦與의 葛藤이 일어날 수 있다.

② 北韓側이 交流 對象으로 선정하는 種目 및 作品에 따라서는 北韓社會의 理念과 生活相에 대한 美化된 映像이 受容者들에게 浸透될 우려가 있다.

③ 北韓側은 藝術政策 및 理論이 단일한 根據에서 立脚하여 끊임없는 思想學習의 반복으로 精製되어 있는데 비하여, 南韓의 多様な 藝術 趣向 및 理論이 人적 交流·討論의 기회에 이들과 論爭의으로 부딪힐 경우 論理上의 混線을 노출하여 저들에게 일시적으로 유리한 位置를 許容할 可能性이 있다.

④ 南韓의 大衆藝術 중 大衆迎合的 商業主義의 要素가 짙은 藝術作品의 素材의 通俗性과 感覺主義의 性向은 北韓側에 의하여 「資本主義 藝術의 퇴폐적 증상」으로 非難되거나 北韓 住民들에 대한 政治教育 資料로 역선전될 可能性이 많다.

⑤ 그동안 우리側의 社會的·法律的 制限 措置에 따라 出版·配布가 規制되거나 불이익 처분을 받았던 文學作品 및 藝術品에 대해 北韓側이 이를 戰略的으로 이용함으로써 宣傳 攻勢를 誘發할 可能性이 있다.

위의 지적한 바의 肯定的 側面과 豫想되는 問題點을 加減하여 相

計할 경우 藝術 交流에 의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바람직한 效果가 더 크다는 點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南北 交流란 우선 開放社會 對 閉鎖社會사이의 相互 開放을 추진하는 작업인 만큼 이를 통해 나타날 수 있는 有形·無形의 부담은 閉鎖社會쪽이 훨씬 더 많을 수 밖에 없으며, 優慮되는 부정적·側面은 交流의 具體的 內容과 節次를 調整하고 事前 對策을 마련함으로써 그 問題性을 除去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라 判斷되기 때문이다.

5. 綜合的 結論 및 對策

以上에서 論議한 바를 要約하여 結論을 삼고, 이를 土臺로 하여 南北韓 藝術 分野 交流에 대한 對策을 提示하기로 한다.

南北 藝術 交流의 諸問題를 論하는데 있어 本稿는 接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狀況要因보다는 藝術 自體의 屬性 및 現況과 그 交流가 안고 있는 問題들에 主眼點을 두어 檢討를 進行하였다. 아울러, 交流 協力の 進行은 同質的·傳統의인 것에서부터 점차 異質的·當代的인 것으로, 靜態的·事物的인 것에서부터 理念 要素가 보다 깊은 動的·行爲的·言語的인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함을 前提하였다.

南北韓의 藝術을 總體的으로 比較해 볼 때 단적으로 指摘할 수 있는 차이는 北韓藝術이 社會主義 革命 理念에 奉仕하는 道具로서 획일적 藝術政策과 理論에 엄격히 統制되고 있는데 비해, 南韓의 藝術은 藝術家 個個人的 個性과 民間藝術團體의 서로 다른 指向에 따라 모든 活動이 이루어지고 政府는 다만 이를 側面的으로 保護·支援하는데 따라 無定型的 多樣性이라 할 만한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 준다는 사실이다. 北韓의 藝術에서 「당 중앙」의 藝術理論 이외의 論理가 있을 수 없음은 물론, 藝術家 個個人的 個性 또한 許容되지 않는다. 이에 비하여 南韓의 藝術이 지닌 多樣性은 開放社會의 활력 위에서 質的으로나 量的으로나 저들과 比較할 수 없는 藝術的 水準과 人間經驗의 깊이에 호소하는 感應力을 可能케 한다.

그러나, 理念과 體制를 달리하는 南北韓間의 交流라는 특수한 狀況條件 속에서 우리 藝術의 多樣性 속에 內包된 일부 素材的·主題的 陰鬱性的 側面과 大衆迎合的 商業主義 藝術의 表皮的 感覺主義는 바람직하지 않은 대비 關係를 드러내게 될 可能性이 있다는 점도 留意되어야 한다.

文學·美術·音樂·演劇 및 舞臺藝術·映画·民俗藝術과 傳承놀이로 나누어 考察한 分野別 比較에 있어서는 北韓 藝術이 主題上으로 획일화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예술“장르”의 多樣性을 顯著하게 縮小시키고 傳統的 樣式을 변형시킨 사실을 確認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美術·音樂 部分에서 특히 顯著하여, 南韓의 美術·音樂·“장르”중 北韓에서는 이미 消滅되거나 다른 “장르”와 統合되어 버린 것들이 많다. 技法 및 藝術的 表現力 水準에서 볼 때 北韓의 藝術은 대부분이 南韓의 藝術에 비해 素朴·幼稚한 段階에 머물러 있다. 그들은 「民族形式에 社會主義的 內容을」담는다는 口號를 일반적으로 愛用하고 있으나 傳統藝術의 豊富한 遺産을 閉鎖的인 價値基準으로 선택하고 金日成主義的 취향에 맞게 變形함으로써 民族 藝術의 傳統性이라는 측면에서도 내실이 貧弱하다. 이점은 南韓의 藝術이 外來的 藝術思潮에 민감하면서도 1960年代 以來 傳統藝術 各부분에 대해 커다란 關心을 가지고 그 繼承·受容·再創造의 활발한 成果를 거두어 온 事實과 對照的이다.

反面에 演劇·舞臺藝術에서는 北韓의 強力한 權力構造에 의해 育成된 綜合的·集體的 大作主義의 結果로서 갖가지 分野의 技法과 大

型 舞臺 및 多數 出演者를 動員한 激情的 理念劇이 크게 발달하였음이 注目된다. 그 內容의 깊이와 藝術的 表現의 심오한 價値는 不足하다 하더라도 多衆을 상대로 한 舞臺演出의 刺戟 效果는 매우 클 것으로 짐작된다.

民俗藝術·傳承놀이 部門에서는 南韓에서 傳統文化의 保存·發掘·繼承 努力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北韓側의 實相은 民族文化 創造에 대한 그들의 자부와 달리 그 내실이 매우 貧弱한 것으로 判斷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南韓에서 外來文化의 洪水 수에 民族文化 遺産과 藝術이 말살되었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러한 點을 考慮할 때 南北 藝術 交流에 있어서 民俗藝術·傳承놀이 部門이 優先的인 重要性을 띠는 提議 對象으로 될 必要가 있다. 그것은 南北이 異質化되기 이전의 文化的 基底를 確認하고 民族的 同質性을 追求한다는 뚜렷한 名分과 함께 南北韓이 民族文化의 遺産을 어떻게 지키고 繼承하여 왔는가를 단적으로 밝히는 데에 커다란 效果를 가져올 터이기 때문이다.

南北 分斷 以後 最近에 이르기까지 雙方이 藝術 分野의 交流·協力에 대해 提議한 바를 綜合해 보면 1971年頃까지 北韓側의 提議가 많았다가 그 以後에는 뚜렷한 提議 事實이 없음을 알 수 있다. 反面에 南韓側의 提議는 70年代 中엽부터 最近까지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다. 北韓側의 提議 內容은 理念的 葛藤의 可能性이 적은 部門이나 物的 交流보다는 討論會·經驗交換會 開催 등의 만남이나 抽象的 協力 提議가 더 많았다. 70年代 中엽 이래 그들의 藝術

交流 提議가 보이지 않는 點이 의미하는 바를 速斷하기는 곤란하나, 적어도 이 分野에 있어서 그들이 優位를 자신하고 있지 못하다는 點은 推定해 볼 수 있다.

交流·協力の 提議는 各 藝術 分野를 망라하여 包括的인 原則과 具體的 模型을 함께 提示하되, 實行上의 優先順位를 미리 設定하고 段階的으로 推進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적인 變更 및 狀況的 流動性이 介入될 수 있음을 前提로 하여 交流·協力の 分野 別 種類와 類型에 따른 優先順位를 設定해 본 結果는 다음과 같다.

(1) 古美術品·工藝品·書畫·傳統樂器(改良種 包含)의 交換展示 또는 共同展示會 開催 傳統音樂·民俗藝術·口碑文學·傳承놀이에 관한 調査·保存·整理資料 交換

(2) 文學作品集, 音樂 演奏 資料, 民俗·文化遺蹟·名勝에 관한 기록 映画 필름, 舞臺藝術 錄画 필름, 劇映画 필름 等の 交換과 양측의 藝術人들이 相對方側의 藝術家들을 訪問하여 生活 方式, 藝術 作業 現場, 創作 經驗 등에 관해 意見을 나누는 일.

(3) 위의 두 段階가 순조로이 進行될 때 發展的으로 民族文化·藝術의 共同紐帶를 確認하는 行事로서 農樂 交換公演, 民俗藝術團 相互 訪問 公演, 各 地域의 特徵的 民俗놀이·藝術 觀覽 招請, 傳承民謠·탈놀이 發表會 등 觀覽者와 行事者가 參與하는 傳統藝術의 만남 行事.

(4) 위의 어떤 段階에서든 雙方이 합의 할 경우 藝術品과 藝術

行事を 海外에서 共同으로 展示·發表.

(5) 기타 南北 分斷 以後의 現代藝術 諸部門에 속하는 舞臺藝術의 相互 交換 公演과 藝術品 製作上的 物的·技術的·素材的 協助 및 便宜 提供

이와 같은 交流가 現實化될 경우 肯定的 效果와 함께 否定的 影響이 優慮되는 측면도 있으나, 全體的으로 보아 肯定的 效果가 훨씬 더 클 것으로 推定된다. 藝術 交流는 經濟的·技術的 交流보다는 雙方의 接觸 範圍가 더 크고 그 效果가 持續的이기 때문에, 硬直된 社會主義 體制 아래 획일화된 藝術만을 대하던 北韓 住民들에게 다른 種類의 生活價値를 認識케 하는 동시에 「金日成主義」의 抑壓性 속에 갇혀 있던 인간의 普遍的 慾求와 感性을 환기하는 契機가 될 것이다. 반면에, 豫想되는 否定的 측면은 충분한 事前 대비와 交流方法의 運營에 따라 除去하거나 極小化시킬 수 있을 것으로 推定된다.

이상의 多角的 檢討에 立脚하여 볼 때 南北韓 藝術 交流는 提議·實行할 만한 充分的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그 效果 또한 적지 않으리라 期待된다. 이를 成功的으로 推進하는데 必要할 것으로 보이는 대책들을 試論的으로 提示하면 다음과 같다.

① 交流 對象 藝術 分野의 最近 10年間 北韓側 實態가 充分的 資料에 의하여 具體的이고도 綿密하게 研究·確認되도록 한다.

② 各 藝術 分野의 學者·藝術人들이 北韓의 藝術政策, 藝術理論,

藝術人들의 生活相, 藝術品 生産 및 受容의 構造에 비해 相當한 認識을 갖추므로써 實제의 交流 狀況에 適切히 對應할 수 있도록 한다.

③ 南北 藝術 交流를 위한 機構 構成方案과 그 機能에 대해 몇 가지 模型을 設定하고 運營상의 특질을 檢討하여 狀況 展開에 대비한다.

④ 南北 藝術 交流의 提議 및 실행이 突發的인 충격 效果를 일으키지 않도록 國民的 認識의 基盤을 漸進的으로 造成한다.

⑤ 交流의 提議·實行에 있어 北韓側의 反應 可能性을 다각도로 豫想하여 對應策을 準備한다.

⑥ 藝術 分野 交流의 實現이 우리가 期待하는 方向에서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國際 社會의 輿論을 造成한다.

